

碩士學位請求論文

1950年代 大衆小說論의 展開 樣相 研究

指導教授 文 聖 淑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李 孝 順

2002年 8月

1950年代 大衆小説論의 展開 樣相 研究

指導教授 文 聖 淑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합니다.

2002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全功



李孝順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2年 7月 日

審査 委員長 _____ 印
審査 委員 _____ 印
審査 委員 _____ 印

<國文抄錄>

1950年代 大衆小說論의 展開 樣相 研究

李 孝 順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指導教授 文 聖 淑

이 연구는 1950년대 대중소설론의 전개 양상을 통해 아직까지도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1950년대 대중소설론을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함으로써 우리 근대문학사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길을 찾는 데에 의의를 두었다.

1950년대 대중소설론의 전개양상을 살피기 위해 당시에 신문이나 문예지에 실렸던 90여 편의 논의를 기초 자료로 삼았다. 이를 통해 1950년대의 일반적인 대중문학 논의를 비롯해 대중문학의 중요한 축이 되는 대중소설 자료를 기준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고찰함으로써 전체적인 대중문학론의 흐름을 조망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대중문학에 관한 논의는 소수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것도 대중문학에 관한 부정적 속성을 비판한 것이 큰 흐름을 이룬다. 대중문학론의 전개 과정에서 '대중문학'이라는 용어가 어느 정도 확정된 시기는 5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대중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대중소설이 본격적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신문소설이 만들었다는 점은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비판의식을 표출하는 기능을 신문소설이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은 1950년대 대중소설의 두드러진 위상이라 할 수 있다.

문학의 비속화, 지나친 상업성의 추구, 기존 체제에의 순응이라는 대중문학의 부정적인 요소를 경계하면서, 한편 대중문학이 우리의 문학풍토에서 어떻게 정립되어 왔으며 대중문학이 성공하게 된 요인과 자질을 확인하는 작업은 오늘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문학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문화적 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변화의 물결을 완고히 거부해서 과거의 문학관만을 고집해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무조건 새로운 것만을 추구해서도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문학의 전통을 폭넓게 수용하여 미래를 유연한 시각으로 통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리라 본다.

* 이 논문은 2002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임.

目 次

I. 序 論	1
1. 研究의 目的과 研究史 檢討	1
2. 研究 方法 및 範疇	5
II. 大衆小說의 概念과 性格	9
1. 大衆의 概念	10
2. 大衆小說의 概念과 特性	13
3. 우리의 境遇	16
III. 大衆小說論의 展開 樣相	21
1. 大衆小說 一般論	24
1) 大衆小說과 純粹小說의 區分	25
2) 大衆小說에 對한 認識	26
2. 新聞小說論	31
1) 新聞小說의 成長 背景	31
2) 저널리즘과 讀者의 認識	34
3) 新聞小說 創作論	39



3. 歷史小說論	43
1) 歷史小說의 成長 背景	43
2) 歷史小說에 對한 認識	44
4. 探偵小說論	48
1) 探偵小說의 性格	48
2) 金來成의 探偵小說論	51
IV. 1950年代 大衆文學論의 文學史的 意義	55
V. 結 論	58
<參 考 文 獻>	61
<Abstract>	65
<附 錄>	67



표 목 차

<표 1> : 논의 출처별 분류	23
<표 2> : 논의 유형별 분류	33
<표 3> : 논자별 분류	33



I. 序 論

1. 研究의 目的과 研究史 檢討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참혹하고 쓰라린 상처였다. 전쟁이 곧 평화이며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동족상잔의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진정 생각지도 못한 시련과 고통을 준, 글자 그대로 아비규환이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치유될 수 없는 비극적 체험으로 남게 했으며, 우리의 현대 문학에서 가장 지속적으로 재현되는 주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E.M.포스터는 『소설의 양상』에서, 소설에서 다루어지는 인간 생활의 범위는 그리 무한한 것이 아니고 '태어남·잠·사랑·밥·죽음'의 다섯 문제가 확대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다섯 가지 소재에 '전쟁'을 따로 첨가해야 할 정도로 전쟁은 문학의 제재로 큰 역할을 하였음은 물론, '현실의 가장 요약된 최고의 축도'¹⁾라고 볼 수 있다.

전후에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더욱 고착화되면서 이념적 성찰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 아래에서 정치인이나 고위관리, 부유층 등 사회 지도층의 비리와 타락한 행태를 고발하고 비꼬며 독설을 퍼붓는 역할을 대중소설이 맡아하는 일이 많았다. 이는 현실적으로 소외되고 결여된 존재인 대중들에게 허구의 세계에서나마 지도층을 마음껏 공격할 수 있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상대적인 박탈감에서 오는 불만을 해소시키는 카타르시스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 대중소설인 것이다. 특히 정비석의 「자유부인」·「애정무한」·「슬픈 목가」, 김말봉의 「화관의 계절」, 안수길의 「제이의 청춘」, 이무영의 「계절의 풍속도」 등의 많은 대중소설들은 1950년

1) 조연현, 「한국전쟁과 한국문학」, <전선문학>, 1953. 5, 6면.

대의 시대상과 세대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사회 상황과 여건 속에서 여러 작가들에 의해 대중소설이 창작되면서 문단과 당대 사회에 큰 관심을 모으게 된 것이다. 1950년대에는 여러 상황에서 대중소설이 면모를 드높일 환경이 조성되면서 여러 면에서 1930년대 상황²⁾과 유사한 점이 많다. 뿐만 아니라 대중소설과 관련한 이론 전개를 통해 대중소설에 대한 독자들의 부정적인 관점을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시켰다. 어찌 보면 근대문학의 출발이 이광수·최남선으로 대표된다면 1950년대의 대중소설 창작이나 이론 전개의 대표 주자는 정비석과 김내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겠지만 그들은 대중소설이 저널리즘의 상업화에 따른 통속성 등의 문제점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상당 부분 불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대중문학론의 전개 과정에서 '대중문학'이라는 용어가 혼란을 극복하고 개념이 확립된 것은 5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1950년대의 대중문학에 대한 논의는 그 이전의 분산된 논의들을 통합·재구성하고, 독자의 대중성과 내용의 통속성 때문에 혼용되었던 통속소설이라는 개념도 대중소설이라는 용어로 정착³⁾되어 나간 점이다. 이 시기에 제기된 대중문학론의 주요 쟁점들은 대

-
- 2) 백철은 대중소설이 득세하게 된 1930년대의 문학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대체로 通俗小説은 現代의 商業主義의인 저널리즘을 背景하고 胎生된 近代 正統文學의 一崩壞 過程의 表現이었는데 따라서 그것이 정말 通俗小説인 때 는 그 땅의 저널리즘이 그만한 商業主義 成熟 위에 形成된 것이라야 할 텐데 이 땅의 新聞 위에 그 商業主義가 겨우 一形態를 갖추게 된 것이 一九三五年 以後라는 것이다.(……) 그러나 一九三五年 이후에 通俗小説이 登場한 또 하나의 重要한 原因은 이 時代의 現實이 것처럼 暗黑해서 그 前과 같이 傾向的으로 나갈 길 이 막혀버린 때문에 通俗小説로 흐르게 된 事實을 重視해야 할 것이다. 一部の 作家가 世態小説 身邊小説을 쓴 것이다. 또 一部の 作家들이 歷史小説을 쓰게 된 事實과 參照해 볼 때에 이 時代의 文學의 가장 無難하게 이 時代를 通過하려는 傾向으로 表現된 것이 通俗小説의 登場이던 것이다.” (백철, 『신문학사조사』, 민중서관, 1963, 342~343면.)
- 3) 문성숙, 「한국 대중문학론의 전개과정 연구」, 『한국문학연구』 20집, 동국대학교 문학연구소, 1998.

중문학의 성격 규정 문제, 본격소설과의 관계, 신문소설·역사소설·탐정소설·통속소설 등 대중소설의 하위 장르들에 관한 논의, 발표매체와 작품과의 관계 등에 관한 것이었다. 이토록 다양한 논의들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1950년대 대중소설론에 대한 오늘날의 종합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시기별로 볼 때 1930년대의 대중문학론에 관한 논의⁴⁾와 1970년대의 논의⁵⁾는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그런데 이에 비해 50년대 대중소설론에 대한 오늘날의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다소

-
- 4) 김강호, 「1930년대 한국 통속소설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1994.
 권선아, 「1930년대 대중소설의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1994.
 이종호, 「1930년대 통속소설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1996.
 김영찬, 「1930년대 후반 통속소설연구-‘질레꽃’과 ‘순애보’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1995.
 서영채, 「30년대 통속소설의 존재방식과 그 의미」, 『민족문학사 연구』 4, 1993.
 조성면, 「1930년대 대중소설론의 전개-양상」, 『한국학 연구』 6,7합집, 1996. 12.
 한명환, 「1930년대 신문소설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논문, 1996.
 최소영, 「이태준 신문연재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1995.
 백운주, 「1930년대 대중소설의 독자공감요소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1996.
 강옥희, 「1930년대 후반 대중소설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논문, 1999.
 이정옥, 「대중소설의 시학적 연구-1930년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논문, 1999.
 김한식, 「1930년대 후반기 장편소설론 연구-통속소설론을 중심으로」, 『현대소설 연구』 제9호, 한국현대소설학회, 1998.
- 5) 박휘중, 「1970년대 대중소설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논문, 1996.
 추은주, 「1970년대 대중소설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1997.
 조남현, 「통속소설의 실상」, 『문학과 정신사적 자취』, 이우출판사, 1984.
 박철우, 「1970년대 신문연재소설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1996.
 김춘식, 「대중소설과 통속소설의 사이—60년대 후반~70년대 대중소설에 대해서—」, 『대중문학과 대중문화』,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엮음, 아세아출판사, 2000.
 안낙일, 「1970년대 대중소설의 두 가지 서사 전략—‘별들의 고향’과 ‘영자의 전성시대’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문학』, 정덕준 외, 소화, 2001.

연구의 성과물이 있다 하여도 50년대 대중소설론에 관한 논의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또 작가론·작품론적 성격을 띤 연구가 대부분이다.

강진호⁶⁾는 1950년대 대중소설을 대표했던 정비석의 『자유부인』을 통해 전후 현실을 바탕으로 한 전후소설의 존재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유임하의 연구⁷⁾도 정비석의 『자유부인』을 중심으로 한 대중소설과 대중문화의 관련성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살폈다. 이 둘은 작품론적 성격을 띠고 있어 50년대 대중소설론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기에는 미흡하다. 홍정선⁸⁾은 한국대중소설의 전개 과정에서 ‘해방 후의 신문소설 논의’라는 항을 따로 두고 정비석의 「신문소설론」⁹⁾을 중심으로 하여 1950년대 대중소설론의 흐름을 개략적으로 더듬어 보았다. 그러나 대중소설의 부정적 측면에 속하는 점을 중심으로 범위를 좁혀 전개한 50년대 대중소설론에 관한 논의는 간략한 점검에서 멈췄다. 또 서광운¹⁰⁾은 1880년부터 1970년까지의 신문소설사를 전개해 나갔다. 시기별로 자료를 묶어서 정리하는 가운데 광복 이후부터 1950년대를 통속문화기와 전쟁문화기로 분류하여 1950년대의 작품을 다루었다. 여기에 ‘한국 신문소설 연표’를 작성하여 이 분야에 대한 연구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자료사적인 정리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여 1950년대 대중소설에 관한 논의의 직접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처럼 1950년대 대중소설론에 관한 연구는 논문과 단행본 연구서들이 몇몇 나왔지만, 대부분 작품론이나 작가 연구의 한 부분으로 다뤄지거나 또는 한국 대중문학론의 전개 과정 속에서 부분적으로 논의되는 정도이다.

6) 강진호, 「1950년대 현실과 도덕적 계몽의 서사—‘자유부인’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문학』, 정덕준 외, 소화출판사, 2001.

7) 유임하, 「전후소설과 대중문화의 상호연관」, 『대중문학과 대중문화』, 동국대학교한국 문학연구소, 아세아문화사, 2000.

8) 홍정선, 「한국대중소설의 흐름-통속소설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 근대대중소설 비평론』, 조성면 편저, 태학사, 1997.

9) 정비석, 「신문소설론」, 『소설작법』, 문성당, 1957.

10) 서광운, 『한국 신문소설사』, 해돋이, 1993.

이렇게 볼 때 1950년대 대중소설론에 대한 종합적이고 기초적인 논의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는 1950년대에 신문과 잡지에서 논의되었던 대중소설론 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당시 대중소설론의 전개 양상을 살피면서 당시의 작가나 비평가들의 대중문학에 대한 인식 수준을 가늠해 보는 과정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1950년대 대중문학 논쟁의 주요 쟁점들을 고찰하고, 대중소설에 대한 옹호적·비판적 입장의 작가나 비평가들의 견해를 통하여 1950년대 대중소설론에 관한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논의들을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함으로써 우리 근대문학사의 범위 확장에 기여하는 데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1950년대 대중문학에 대한 분산된 논의들을 통합하고 재구성하여 우리 근대문학사의 전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인식의 틀을 만드는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더 나아가 대중소설론 연구는 한국 문학비평사의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그것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데에도 이바지하는 작업이 되는 것이다.



2. 研究 方法 및 範疇

대중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자세로서, 이 관점은 문학성이 진지함을 연결시켜서 대개 ‘대중문학 유해론’으로 나아간다. 결국은 대중문학은 함량미달의 문학으로 예정된 결과를 밝히는 면으로 나아간다. 둘째는 대중문학의 몇 가지 개념들(통속성, 도식성, 상투성, 환상성 등)에 기대어 긍정적으로 그 의의를 밝히려는 자세이다. 그리고 셋째는 객관성을 가지고 내적 논리를 밝히려는 자세이다. 이는 주로 객관적인 시각에서 문학사를 정리하는 작업에 적용되어 온 관점이

다.

이런 관점은 1950년대 대중문학에 대한 당시의 논의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여기서 1950년대 대중소설론에 나타난 작가 및 비평가들의 대중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을 구분하여 고찰해 보고 이들 논의들을 서로 비교 대조함으로써 비로소 50년대 대중소설론의 총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이 연구의 단초이다. 그 예비 작업으로 당시의 대중소설에 관한 논의들을 폭넓게 수집하였다. 그런 다음에 대중소설에 관한 개념과 특성을 서구의 여러 이론들과는 구분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수집된 90여 편의 논의들을 다시 시기와 논자, 발표지 등을 기준으로 다시 세분하여 당시의 대중문학이 어떤 관점에서 이루어진 논의인지를 분석함으로써 전반적인 50년대 대중소설론의 전개 양상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다음 단계로 논의 자료를 다시 대중소설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려 한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대중소설은 '소설'이란 상위 범주에서 분류된 하위 개념으로 '소설' 앞에 붙은 '대중'이란 수식어가 그 소설의 의미와 성격을 제한하게 된다. 따라서 대중소설로 분류된 작품을 읽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본격소설과 다른 관심과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대중소설에는 본격소설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 이를테면 통속성·오락성·우연성·감상성 등이 빈번히 나타나기 때문에 본격소설에서 요구하는 미학적 장치나 주제 의식의 형상화 같은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토마스 먼로에 따르면, 일반적 분류란 어떤 영역에서도 그 자체로 쓸모 있는 지식의 조직화를 위한 장치이다. 그리고 이 장치는 엄청나게 다양한 인간 온갖 문화 산물이 갖고 있는 다채로운 국면의 상호 관계를 부각시킬 수도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지 않으면 모르고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각각의 특성을 새롭게 주목하게 해 준다.¹¹⁾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유형 분류는 그것의

11) Thomas Munro, 『Art, Classification of the』, Encyclopedia Britannica, vol.14,

특성을 선명히 부각시켜주는 일종의 안내 표지와 같은 것이다.

연애소설·로망스(벨로드라마)·신문연재소설·추리(탐정)소설·공상과학소설·납량공포(괴기)소설·무협소설·역사소설·환상소설 등 대중소설의 하위 개념들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띤다. 또 이들 하위 개념들은 서로 중첩되기도 하고 다시 세부적으로 나뉘기도 하면서 더욱 복잡한 모습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중소설의 하위 항목에 대한 논의를 고찰하기 위해 작품의 주제와 관련하여 대중소설의 유형을 '탐정소설·역사소설·연애소설' 등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에 따른 논의들을 실증적인 자료를 들어 분석하고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유형들은 역사가 오래되었고 끊임없이 변종이 나타나지만 지금까지도 많이 쓰여지며 폭넓은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 중에서도 모든 대중소설의 모태라 할 수 있을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연애소설은 대중들이 즐겨 읽고 그들에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는 소설 유형이다. 전 세계적인 분포를 보이는 이야기의 한 유형인 연애소설은 하나의 독립된 유형으로 설정하여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어야 하겠고, 또 신문소설과 중첩되는 점이 있어 이 글에서는 연애소설론으로 분류를 따로 하지는 않았다. 여기에 대중소설의 하나의 축이 되는 '신문소설'은 주제와 관련 없이 항목을 달리하여 논의하려 한다. 특히 대중소설 작품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소설과 하위소설에 관한 논의들을 다루는데 초점을 맞추려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과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1950년대 대중소설에 관한 여러 논의들이 우리 문학사에서 갖는 의의를 찾아내려 한다.

이 연구를 위해 먼저 1950년대 당시에 논의되었던 자료들 중에서 대중소설론과 관련된 자료 98편을 선정하여 기초 자료로 삼았다. 연구 대상으로 삼

1989, 99면, 동국대학교한국문학연구소 엮음, 『대중문학과 대중문화』, 아세아문화사, 64면, 재인용.

은 자료들은 1950년대 대중문학론의 양상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만을 추려내었다. 이 자료는 발표 시대순으로 하여 <부록>에 제시하였다.



Ⅱ. 大衆小說의 概念과 性格

오늘날은 SF나 추리소설 같은 대중소설이 서점가에 베스트셀러로 통계되어 나오고 사이버 공간에서는 판타지 소설류의 대중소설이 젊은이들을 매료시키는 시대이다. 특히 PC통신을 통해 완성된 이우혁의 판타지 소설 「퇴마록」은 매 권 간행될 때마다 10만 부의 판매고를 올렸고 지금도 많은 작가 지망생들이 자신의 글을 가상 공간에 올리고 있다. 이렇게 올려진 글에 관심을 갖는 독자층이 형성되면 출판사는 상업성을 띤 책을 만들어 고객을 찾아 나선다. 이처럼 '판타지소설'이라 불리는 대중소설이 10대와 20대의 독자층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뿐만 아니라 TV·영화·광고·대중가요 등의 문화적 소비가 증대되고, 개인의 삶과 일상 생활에 미치는 대중문화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져간다. 이제 대중문화 또는 대중문학은 이 시대의 화두처럼 독자들 앞에 제시되고 있다. 그만큼 대중문화·대중문학이 우리의 일상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말이다.

90년대 들어 갑자기 유행하기 시작한 대중문화·대중문학에 대한 일련의 연구는 대중소설을 본격적인 학문 연구의 대상으로 그 위상을 격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문학연구와 문학현실 사이의 간극을 좁혀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이 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에 접근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먼저 '대중'·'대중소설'의 개념을 개략적으로 살피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 생각한다. 그 이유는 대중문학에 관한 논의는 '대중'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담론의 범주가 달라질 수 있다. 근본적으로 '대중'이란, 시

대나 환경 또는 이를 해석하는 사람들의 의식에 의해 유동적일 수 있는 개념에 해당되며, '대중'의 의미 규정에 따라 '대중소설'의 개념 또한 상대적으로 다양한 의미 부여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중소설의 개념을 논할 때 발생하는 혼란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중'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의 여부에서 비롯된다. 일반적으로 '대중사회'의 역사적 기원을 따질 때 우리는 서구의 경우와 다르다. 우리 사회를 대중사회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1960년대 후기부터라는 것이다.¹²⁾ 이 견해를 문학사에 적용한다면, 60년대 이전에는 우리 문학사에 대중소설이 부재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개화기의 통속적 성격의 신소설들과 광복 전후의 대중적 신문소설들을 감안한다면 이런 구분은 전혀 유용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의 대중소설의 개념과 특성을 서구와는 다른 점을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大衆의 概念

대중(Mass)이라는 개념은 원래 서구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 혁명과 영국의 산업혁명에 따른 근대 시민사회 형성기에서부터 '대중'이란 소수의 권력층, 귀족 계급에 맞섰던 다수의 시민 계급을 지칭하는 용어였다. 자유와 평등 같은 인간적 가치를 옹호하고 나선 시민 계급의 이상이 바로 당대 사회의 '대중'의 이상이었던 것이다. 이 시기에 대중이란 개념은 시민 또는 민중의 개념과 별다른 구분 없이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19세기 자본가 계층의

12) 이에 관해서는 강현두, 「현대 한국사회와 대중문화」, 강현두 편, 『현대사회와 대중문화』, 나남, 1998, 20-21면 참조.

급성장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못한 계층과의 갈등이 증폭되기에 이르게 되자, 이러한 수동적인 시민 계층인 '대중'과 비판적·변혁적이던 '민중'을 구분하려 한다.

전통적 보수주의와 혁신적 급진주의가 대중 예술에 대한 이해에서 서로 궤도를 달리하지만 '대중'이 대중예술의 소비주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들이 파악하고 있는 '대중'은 곧 익명의 집단이며, 사회의 능력 있고 뜻 있고, 생각 깊은 일부 소수 사람들에 맞서서 방향 없이 표류하는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이다. 그래서 루돌프 아른하임은 "대중은 삶의 현장에서 몇 백 리 떨어진 곳에서 소외되고, 신경증에 걸려 침묵하고 있는 원자화한 인간 군상"¹³⁾으로 암시한다. '대중'은 합리적 이성에 의존하기 보다 본능적 감각에 따라 반응하는 익명의 집단으로 개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지배 계층에 의해 억압받으면서도 정치적으로 활성화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 의식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민중 개념과 대중 개념이 확연하게 구별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 바탕을 둔 것이다. 다시 말해 자각된 능동적인 개개인의 집합으로 구성된 사이에 공통의 문화와 관심사가 존재하고 기본적으로 참여 지향적인 성격을 갖는 것¹⁴⁾이 '민중'의 특징이라면 '대중'은 그와 정반대 되는 성향을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사회 각 분야에서 대중의 '힘'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하여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 오늘날의 사회는 바로 '대중의 시대'이다. 오늘날과 같이 사회 구성원간의 상호 소통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의 대중의 개념은 어떤 특정한 집단과 계층을 염두에 둔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즉 대중이란 수적인 다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13) Arnheim, Rudolf, 『*Film as Art*』 (London: Faber & Faber, 1983), 163 p. 박성봉, 『대중예술의 미학』, 동연, 2001, 39면, 재인용.

14) 대중과 민중의 관계에 대해서는 장영우의 「대중소설의 유형과 그 특질」(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엮음, 『대중문학과 대중문화』, 아세아문화사, 2000)을 참조할 수 있다.

아니라 사회의 모든 계층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개념이다. 다음의 막스 러너의 말은 대중에 대한 고정된 선입견을 재고할 여지를 마련한다.

대중문화의 생산자들은 그들이 추상화하려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다양한 취향을 갖고 있는 개인들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이 사실을 망각한다면 그것은 그들 자신을 위태롭게 할 뿐이다. 왜냐하면 '대중매체'에서 '대중'은 획일적이거나 수동적이고 맘대로 조작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¹⁵⁾

비슷한 맥락에서 레이몬드 윌리엄스는 “만일 당신이 ‘대중’에 대해 고정된 선입견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진정으로 그들의 참모습을 볼 수 없을 것이다”¹⁶⁾라고 말한다. 위에서 아른하임이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대중이 남들로부터 소외되어 혼자서 무표정하게 TV를 보며 아무 반응 없는 추상적이고 무의미한 존재가 더 이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대중을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최근 나타나는 대중예술에 대한 또 하나의 이론적 접근 자세이다.

궁극적으로 논의들을 종합할 때 현대 사회에서 ‘대중’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의 주체를 이루면서, 개인으로서의 일상과 욕망에 충실한 불특정한 다수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겠다.

15) Laner, Max, 『America as a Civilization: life and thought in the United States today』 (New York: Simon & Schuster, 1957), 776 p, 박성봉, 전계서, 41면, 재인용.

16) Williams, Raymond, 『Communications』 3rd ed. (Penguin Books, 1982), 107 p 박성봉, 전계서, 41면, 재인용.

2. 大衆小説의 概念과 特性

이른바 대중문학이라 할 때 그것은 두 가지 방향에서 그 개념을 정립할 수 있다. 하나는 개인주의적 문학 내지는 자아 중심적 문학의 대립 개념으로서의 문학을 뜻하며, 다른 하나는 순수문학 또는 본격문학의 대립개념으로서의 그것이다. 전자는 문학의 사회적 기능 혹은 교훈적 기능을 우위에 두는 문학으로서 이것은 실상 문학의 본질적인 문제와 결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후자는 문학의 오락적 소비 성향을 우위에 두는 것으로 여기에서 다루려는 대상의 대중문학을 이른다. 이러한 의미의 '대중소설'은 서구 부르주아 계층의 등장과 함께 대두된 특정 장르로서 현대 대중매체의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폭넓은 독자에게 널리 읽히는 소설이다. 그러니까 대중소설의 원형은 서구 근대소설, 좀더 자세히 말하면 18세기 영국소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당시의 대중소설은 대부분 여성독자로 구성된 도시 부르주아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문화산업의 산물로 탄생한 장르로, 독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그들을 위안하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문학이 소수의 귀족 또는 지적 엘리트의 전유물이었던 중세와는 달리 근대사회에서 문학은 새로운 존재 양식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작가는 익명의 독자 대중의 기호나 취향에 맞는 작품을 써야 하는 상황에 부딪힌다. 문학의 오락적 소비적 성향을 우위에 두는 이러한 대중문학의 사회적 기능은 문학 독자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기여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오락성을 강력하게 추구하는 대중문학을 가리켜 한스 짐머만은 '도식문학'¹⁷⁾이라 말한다. '도식문학'

17) 이와 유사하게 카웰티는 대중문학을 '공식적 문학'이라 명명하면서 그것을 독자에게 안전과 위안을 줌으로써 광범위한 인기를 얻고 있는 도핑의 예술적 수완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그 기능을 관습적인 상상의 구조에 새로운 흥미를 동화시킴으로써 문학사회적 긴장을 조절하고 문화적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데서 찾는다. 이런 카웰티의 입장은 대중소설 옹호론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변혁의 문학이나 혹은 비공식적인 '지하'교육의 문학을 위한 자리가 없

으로서의 대중문학은 기존의 인습에 순응하면서 현실과 대립되는 환상을 통한 대리만족으로 우리의 일상적 불안을 보상한다. 바꾸어 말하면 대중소설의 세계는 현실 그 자체 속에서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해 주며, 거기에 관여하는 일은 현실 그 자체에 관여하는 것의 대상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대중소설에서는 플롯이 매듭을 해결하면서 스스로를 위안하고 독자를 위안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독자가 정확하게 기대했던 바대로 끝나는데 그 까닭은 대중소설이 우리의 일상적 관습과 관례를 크게 배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훌륭한 대중소설가는 대중의 욕구를 미리 알아서 조처해 주는 훌륭한 아버지”로 정의한 자크 과마르(Jacques Goimard)의 말은 대중소설의 특질을 가장 간명하게 요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자크 과마르의 말처럼 대중소설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심각하게 그 문제를 검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제시하고 악과 대결하는 선의 투쟁을 그림으로써 독자가 현실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사건을 대리 경험하게 하는 도식성과 오락성을 주요한 특질로 삼는다.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일련의 페턴¹⁸⁾으로 정의되는 도식성은 이를테면 남녀의 삼각관계, 선과 악의 대립, 천편일률적인 이야기 줄거리, 해피엔딩, 일상적 가치관에의 동조 등과 같은 문학적 관습을 적절하게 차용 또는 변조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그것은 독자의 상식적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범위에서 문제의 해결을 제시하는 닫혀진 체험을 추구한다. 이것은 본격소설의 결말구조가 형클어진 문제의 매듭을 명쾌하게 풀기보다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대립적인 해석이 가능한 구조를 지향하는 것과 본질적인 차이를 드러낸다. 움베르토 에코는 성공적인 대중소설을 쓰기 위해 지켜야 할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크리스토퍼 파윌링(Christopher Pawiling)편. 『대중문학이란 무엇인가 *Popular Fiction and Social*』, 대중문학연구회 편역, 평민사, 1955, 64-66면.

18) J. G. 카웰티, 「도식성과 현실도피와 문화」, 박성봉 역, 『대중예술의 이론들』, 동연, 1995. 94면, 재인용.

일상적으로 존재하지만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현실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긴장의 요소를 찾도록 하라. 출발의 현실과 대비되는 해결 요소를 제시하고, 그것이 최초의 모순들에 대해 즉각적이고 위안적인 해결을 하도록 하라. 만약 출발의 현실이 '실제적'이고 그 내부에 갈등 해결의 조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결요소는 '환상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환상적이므로 그것은 출발할 때에 이미 실현된, 즉각 떠오르는 해결책이 될 것이며, 구체적 사건들의 제한적인 중재를 거치지 않고 돌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¹⁹⁾

에코는 현실의 모순들에 대해 즉각적이고 위안적인 해결 요소를 '환상적'인 것에서 찾도록 말한다. 결국 그의 주장은 대중소설에서 도식성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라는 충고에 다름 아니다.

대중소설의 현실 도피적 특성은 현실 세계의 혼돈, 불확실성, 모호함, 억압 등이 자기 나름의 도식성에 따라 단순 명료하게 하나의 완결된 세계로 단혀지게 한다. 다시 말해 대중소설의 세계는 놀이와 감정 이입, 보상 심리, 일시적이지만 강렬한 서스펜스, 놀라움, 공포 등이 어우러지면서 독특하게 변형된 가상의 단혀진 세계이다. 대중소설이 제기하는 가상의 단혀진 현실에서 벌어지는 대립과 갈등, 그리고 화해의 결말 같은 것은 실제 현실의 그것과 날카롭게 대립되는 것이어서 독자에게 현실의 복잡한 문제를 잠시 잊고 거짓된 만족에 취하게 한다.

그러나 대중소설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대중사회 속에서 문화의 대량화에 힘입어 정제된 고급문화의 생명력을 고갈시키는 것과 함께 독자에게 부당한 사행심과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자기만족과 감상성에 젖게 한다는 등의 문제를 지적한다.

19) 움베르토 에코, 『대중의 슈퍼맨』, 열린책들, 1994, 78면.

3. 우리의 境遇

우리의 경우, '대중'은 '민중' 혹은 '인민' 등의 의미와 구분 없이 쓰이다가 20년대 프로문학 계열에서는 '군중·무산자·노동자·농민'이라는 의미로까지 포괄적으로 쓰였다. 20년대 프로문학 계열을 대표하는 김기진은 「통속소설 소고」²⁰⁾라는 글에서 통속소설과 아닌 소설을 독자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전자의 독자를 부인·소학생·봉건적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노년·청년·농민·대중으로, 또 후자의 독자를 각성한 노동자·진취적 학생·실업청년·투쟁적 인텔리겐차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대중'과 '민중', '농민', '노동자'란 개념이 혼용되면서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졌다. 그러나 전영태는 1930년대 대중문학의 전개 양상과 대중문학론을 살펴보고, 이 시기의 대중문학에 대한 논의에서 불분명하게 사용되던 '대중'의 의미를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광수와 김동인의 소설을 분석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대중'이란 '모여 있지는 않으나 공통된 관심을 갖고 있는 여기저기 분산된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광수는 소설의 존재와 가능성을 '대중성'에서 찾았고, 따라서 대중을 계몽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문학을 이해하고 있는 점과 대조적으로 김동인은 당대 대중의 교육 수준이나 재산 정도 또는 심미적 평가 능력을 피상적으로 인식하여 고급문화를 대중에게 강요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²¹⁾

1950년대 최일수는 '대중'과 '민중'의 개념과 관계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大衆이란 語義와 그 내용을 분석한다면 어느 일정한 集團的인 民衆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大衆을 볼 것 같으면 文學은 이

20) 김기진, 「문예시대관—통속소설 소고」, <조선일보>, 1928. 11. 9~20.

21) 전영태, 「대중소설의 문제점—이광수·김동인의 경우」, <현대문학>, 1978. 5.

大衆이 歷史的 현실에 참여하기 위하여 結集된 이 집단에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또 理解되면서 그 集團의 狀況의 내용 속에 實現되고 있는 새로운 의미를 가진 생활과 언어를 찾아내야 한다. (중략)

大衆이란 하나의 목적 밑에서 集團된 民衆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目的이나 集團의 의미를 갖지 아니하고 그저 그대로 우연적으로 집합된 群衆이나 또는 가령 그 목적이 어떤 不純한 흥미나 이기심에 의해서 形成되고 集합된 그러한 俗衆들과 본래의 大衆과는 엄격한 質的 차이가 있는 것이다.²²⁾

그는 대중의 의미를 '목적 밑에서 집단된 민중'이라며 '대중'이 '군중'이나 '속중'과는 다름을 주장하였다. 그가 말하는 대중의 의미는 오늘날의 '대중'의 개념과는 달리 오히려 '민중'의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1950년대까지도 상당 기간동안 '대중'과 '민중'의 개념은 명확한 구분 없이 쓰이다가 오늘날에 와서는 비교적 구분이 명확하게 사용되는 추세다. 대중은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태평하고 편안한 체제를 희망하면서도 시대적 고민을 거부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또한 '가치있는 것'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변화를 갈망하기도 한다.

70년대 대중소설에 관한 논의 중 오생근²³⁾의 견해는 가장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대중문학 그 자체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대중문학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여기서 그는, '대중'의 개념을 노동자·농민을 뜻하는 민중의 개념과는 구분한다. 그에게 있어 '대중'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 뜻한다.

우리 문학사에서 대중소설과 연관된 최초의 논의는 1919년 김동인의 「小説에 대한 朝鮮 사람의 思想을」이라는 글이 대중문학의 성격에 대한 최초의 이론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이 글에서 소설을 '참 예술적 작품, 참

22) 최일수, 「문학과 대중」, <사상계>, 1958. 2, 23-25면.

23) 오생근, 「대중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이란 무엇인가』, 김현·김주연 편, 문학과 지성사, 1976.

문학적 소설'과 '통속소설'을 구분하여 통속소설이 저급하고 열등하다는 데서 논의를 시작한다.

通俗小說에서는 우리는 卑劣, 劣劣, 추한 것밖에는 아모것도 發見치를 못하오. 거기는 獨創의 閃이 업소. 思想의 烽이 업소. 사랑의 염이 업소. 아모것도 업소. 讀者는 쓰르라는 卑劣한 아담의 思想이 이슬 뿐이오.…… 極幼稚한 通俗小說에 健全한 文學的 小說로 代하고 小說과 墮落을 聯想하는 思想에 小說과 文化를 聯想하는 思想으로 代하야 우리 社會를 純藝術化한 社會로 만드릅시다.²⁴⁾

그가 대중문학을 보는 태도에서 당대의 대중소설에 대한 관점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대중소설이 지닌 특성의 하나인 통속성에 대한 당시의 인식인 것이다.

김동인에 이어서 통속소설론을 전개한 사람은 염상섭이다. 그는 신문소설은 곧 통속소설이며 통속소설은 곧 대중문예라고 하면서 자신은 고급한 소설을 쓸 때와 통속소설을 쓸 때를 구별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의 이런 주장은 통속소설이 쓰여지는 원인을 오로지 독자에게만 전가한 것이라는 느낌을 면할 수가 없게 된다. 20년대 말에 제기된 대중소설론은 대중소설 문제만을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대중소설이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시사를 던져주고 있다.

'대중소설'이란 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면서 대중소설의 의미와 역할을 나름대로 규정해 보려 한 김기진은 '무지한 대중을 각성한 프롤레타리아트로 만들기 위한 대중소설의 수준을 낮추자'²⁵⁾고 한다. 그는, 노동자, 농민들이 쉽게 접하고 읽을 수 있도록 그들의 수준에 맞는 평이한 문체의, 보통인의 감정에 맞는 소설, 즉 대중소설의 창작론을 펼쳐 보인다. 그가 말하는 대중소설

24) 김동인, 「小說에 대한 朝鮮 사람의 思想을」, <학지광> 18호, 1919. 8, 57면.

25) 김기진, 「대중소설론」, <동아일보>, 1929. 4. 14.

이란 단순히 대중의 향락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통속소설이 아니다. 그가 말하는 대중소설에서의 대중은 프롤레타리아적 '대중'을 뜻하는 것이고 그의 소설론 또한 프롤레타리아 소설을 향한 예비단계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1950년대에 이루어진 대중소설에 관한 논의들 중에서 대중소설의 개념과 관련된 것들을 살펴볼 때 가장 많이 주목되는 점이 대중소설에 대한 용어의 혼란이다. 이는 대중소설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50년대 대중소설 논의에서 그 의미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채 동의 어처럼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대중소설·통속소설·신문소설·상업소설 등이다. 소설에서 대중성은 통속성과 구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우리 문학사에서는 신문소설은 곧 대중소설이고 대중소설은 통속소설이라는 편견이 지배적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다수의 '대중'을 소수의 '인텔리겐차'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통속'을 '순수'의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한 것이다. 대중소설과 통속소설의 구분은 접어둔다 해도, 상업소설이나 신문소설과의 의미 구분을 명확히 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윤백남²⁶⁾은 신문소설이란 신문에 실린 소설을 뜻한다기보다는 일반 대중을 위한 소설, 곧 '대중소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한다. 김동인도 윤백남이 발표한 같은 일자의 같은 신문에서 신문소설에 대해 말하기를, 신문소설이 보통의 흥미 중심 소설과 다른 점은 매일 일정한 양이 연재되는 데 있다고 하면서, 그 일 회분 안에서 독자의 흥미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문장부터 대중적이어야 하고 충동적이어야 한다는 등 신문소설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제시한다. 대중에게 인기 있는 상업소설이라 해서 반드시 대중소설이라고 할 수 없으며, 또 신문에 연재된 소설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상업주의 소설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대중에게 널리 읽히고 있는 신문 연재소설은 대중이 요구하는 문학적 요구와 독자들의 통속적 취향에

26) 윤백남, 「신문소설, 그 의의와 기교」, <조선일보>, 1933. 5. 14.

영합한 작품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신문 연재소설 중에 대중소설에
넣지 않는 소설들도 더러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바이다.



Ⅲ. 大衆小説論의 展開 樣相

이 연구에서는 1950년대 대중소설론의 전개 양상을 고찰하기 위한 예비 작업으로 당시의 논의들을 수집하고 몇 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하였다. 자료들 중에서 대중소설론과 관련된 자료 90여 편을 선정하여 종합해 볼 때 다음 몇 가지 점들이 주목된다.

선정된 98편의 대중소설에 관한 논의들을 연도별로 구분해 보면, 1950년 8편(9.0%), 1952년 3편(3.0%), 1953년 11편(12.0%), 1954년 9편(10.0%), 1955년 6편(7.0%), 1956년 8편(9.0%), 1957년 20편(21.0%), 1958년 24편(25.0%), 1959년 9편(10.0%)으로 나타났다.

이들 자료에서 1957년부터 말까지 논의된 것(53편)이 1957년 이전에 것보다 수적으로 단연 압도적이다. 특히 1957년 이후의 논의 중 신문소설론과 역사소설론이 많은 비중(30편, 57%)을 차지하고 있음으로 미루어 볼 때 몇 가지 상황으로 그 원인을 제시할 수 있다. 이는 전쟁이 지나고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이루어진 교육의 양적 팽창에 따른 식자층의 증가와 신문의 상업주의적 성격이나 신문의 증면 현상 등이 신문소설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판단된다. 이런 증면 상황에서 신문사측이 독자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신문 연재소설을 이용하게 되었다.

5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장편소설만 두 편이 동시에 연재되는 변화를 보여 주었다. '동아일보'는 1958년 4월부터, '경향신문'은 1957년 7월부터, '조선일보'는 1957년 9월부터, '서울신문'은 1958년 10월부터, '한국일보'는 1958년 11월부터 장편을 두 편씩 연재하였다.²⁷⁾ 두 편의 장편을 동시에 연재

27) 김동윤, 『신문소설의 재조명』, 예림기획, 2001, 38면.

하는 경우 한 편은 역사물이었고 다른 한 편은 현대물이 연재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50년대 후반에 신문소설과 역사소설에 대한 비평계의 논의가 활발한 것을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부록>의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당시 대중문학 논의에 참여한 사람은 40여 명에 이르고 있다. 발표 빈도에 따라 논의를 분류해 보았을 때, 이들 중에 정비석이 10편(11%)으로 가장 많고, 곽종원·김내성이 7편(8.0%), 백철이 6편(7.0%), 홍효민이 5편(6.0%) 정도씩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 결국 이들이 당시 대중문학에 관한 논의들을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대중문학의 창작에 직접 참여했거나 비평적 논의에 가담했던 사람들이다. 이 외에도 조연현, 박용구, 정창범, 박종화, 이봉래, 최일수 순으로 발표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논의에 가장 많이 참가한 정비석은 '자유부인'을 1954년에 '서울신문'에 연재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현대소설의 전개 과정에서 전쟁은 또한 작가의 상상력을 근원적으로 제약하고, 문학적 근대성의 성취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자유부인」의 중심 축이 되는 전통적 가치와 개인적 욕망의 대립은 전근대적 삶에서 근대적 삶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흔히 목격되는 평범한 대립 구도로 볼 수 있다. 시대의 큰 흐름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비석은 그런 흐름을 외면한 채 전근대적인 가치관을 강력하게 피력한다. 그의 대중소설관은 무엇보다도 대중을 교양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식을 찾는다.

1950년대 대중문학론에 대한 논의들을 전개했던 출처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발표지	편수	비율(%)	발표지	편수	비율(%)	발표지	편수	비율(%)
현대문학	13	14.3	대학신문	2	2.0	경향신문	1	1.0
자유문학	14	14.3	한국일보	2	2.0	신세계	1	1.0
서울신문	9	9.2	전선문학	3	3.1	여원	1	1.0
새벽	6	6.1	현대공론	2	2.0	한국평론	1	1.0
신태양	5	5.1	동아일보	3	3.1	백민	1	1.0
문예	5	5.1	현대	2	2.0	신천지	1	1.0
사상계	3	3.1	신문예	2	2.0	원광문화	1	1.0
문화세계	3	3.1	전망	1	1.0	펜	1	1.0
문학	2	2.0	세계일보	1	1.0	해성	1	1.0
문학예술	2	2.0	지성	1	10.	기타	8	8.2

<표 1> 논의 출처별 분류

<표 1>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논의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문예지와 신문 중에서 특히 「현대문학」과 「자유문학」, 「서울신문」 등이 대표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전쟁의 휴전과 함께 문단도 움직임이 이뤄진다. 정부의 자문기관이며 예술의 창달기관인 학·예술원을 1954년 설립함으로써 문단도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1955년 조연현·오영수가 주도하는 순문예지 「현대문학」이 창간되고, 직후에 그 동안 휴간 중이던 「문예예술」이 오영수·박남수에 의해 다시 나왔다. 뒤이어 자유문학가협회의 기관지인 「자유문학」이 나와 신인 추천제를 두어 문단의 숨은 인재를 발굴하기 시작했다.

1954년 영국에 다녀온 모운숙을 중심으로 몇몇이 주동이 되어 우리나라에도 펜클럽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싹텄다. 그 해 7월에 모운숙·주요섭·이하윤·피천득·이헌구 등이 준비회를 갖고 9월에 대한공론사 강당에서 변영로·오상순·김기진·주요섭·백철·손우성·이헌구 등이 발기대회를 가져

1954년 10월 23일에 서울 소공동의 서울대 치대 강당에서 한국펜클럽을 창립했다.²⁸⁾ 학·예술원이 생기고 문예지들이 소생하고 이른바 해외문학과들이 펜클럽을 만들 정도로 문단의 폭이 넓어져 갔다.

신문과 잡지를 포함한 대중매체는 처음부터 계몽적인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되었고, 아울러 그것은 근대문학의 물질적 기초를 이루는 것이었다. 창작의 중심이 동인지·기관지 중심에서 신문·잡지와 같은 대중매체로 이동되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작가와 비평가들이 신문소설과 저널리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이에 관한 창작과 비평 활동이 활발해졌다. 이 시기에 이르러 신문과 잡지가 현실을 비판하고 독자를 계몽하는 역할을 버리고 영리 추구라는 상업성을 행사하게 되면서 대중매체의 변질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50년대에 이르러 성(性)의 상품화를 내세운 대중소설들이 많이 창작되면서 상업주의 소설이라는 비난 속에 폄하되기도 했지만 오늘날의 대중문학의 미학과 대중적 효용성의 문제가 제기된 것도 이러한 50년대의 성과에 힘입어 비로소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1. 大衆小說 一般論

우리 문학사에서 대중문학이 순수문학의 대립 개념으로 사용된 것은 이원조의 「순수문학과 대중문학의 문제」²⁹⁾에서부터이다. 여기서 그는, 문학은 그 본질이 처음부터 대중적이므로 그 논리적 요청도 대중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중문학은 양적인 의미를 가지며 순수문학은 질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

28) 서광운, 전계서, 333~334면.

29) 이원조, 「순수문학과 대중문학의 문제」, <조선일보>, 1933. 3. 13-20.

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순수’는 이념적·조직적·고급적인 데 반해서, ‘대중’은 영합적·추수적·통속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중소설을 본격소설 혹은 순수소설과 대립적인 위치에 놓고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논의는 1950년대에도 지배적이었다.

1) 大衆小說과 純粹小說의 區分

대중문학과 순수문학을 구분하면서 그 기준점을 작가의 창작 태도를 문제삼은 경우는 많았다. 창작태도에 있어 대중문학은 작자 자신보다도 독자 대중의 문학적 위안을 위해, 순수문학은 독자보다 작자 자신의 문학적 위안을 목표로 창작된다³⁰⁾는 것이다.

안수길의 생각처럼 대중소설과 순수소설의 구분점을 소설 창작 목적에 두기도 했다. 안수길은 대중소설을 구분하는 분기점을 독자나 작가의 표현욕구에 두었을 때, 통속소설은 독자의 욕구에 응하는 것이고, 순수소설은 작가 자신이 창조적인 표현 욕구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서두에서부터 통속소설은 오락적 위안이 목적인 데에 반해 순수소설은 정신적인 생활이 등불이 된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그의 논리는 김내성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

또 대중문학을 통속문학으로 보면서 본격소설과 구분되는 요소를 다섯 가지로 설명한다.³¹⁾ 다섯 가지 요소란 지나친 ‘감상성’과 ‘우연성’, 등장인물의 ‘유형성’, 그리고 ‘모랄’의 상식성, 제재의 ‘오락성’이다. 이 요소들이 문학적 형상화에 있어서 어떻게 다루어지는가에 따라 통속소설과 본격소설로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30) 김내성, 「대중문학과 순수문학-행복한 소수자와 불행한 다수자」, <경향신문>, 1948. 11. 9.

31) 이봉래, 「대중문학론」, <문학예술>, 1957. 3-4, 142~148면.

정비석은 「통속소설 소고」³²⁾에서 소설을 본격소설과 통속소설로 나눈다. 본격소설은 다수를 무시하고 '선발된 소수의 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설이요, 통속소설은 오히려 '각양각색의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설이라는 개념으로 구분한다. 그의 이런 견해는 김내성이 말한 바 '행복한 소수자'와 '불행한 다수자'³³⁾와 다름 아니다.

대중소설과 순수소설을 흔히들 구분하지만, 이 구분이 전혀 필요 없는 상태로 나아가려는 것이 소설이 추구해야 할 본령임을 강조하는 방인근은 이런 가치 있는 소설이 갖추어야 할 요소를 말한다. 첫째, 대중소설은 알기 쉬운 문장으로 써야 한다는 점과, 둘째, 소설의 문장·묘사·스토리·구상 등에 자연스러운 파란곡절이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셋째, 대중소설은 모든 계층에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내용이 풍부해야 함을 제시한다.

2) 大衆小說에 關한 認識



정비석도 이항대립적인 문학관을 가지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나 대중문학에 대한 옹호론을 주장하는 문학연구가이자 실천가이다. 통속소설은 다수의 독자를 염두에 두고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여러 특징³⁴⁾을 갖게 된다고 했다. 그는 통속소설을 무조건 경멸하는 자세를 버리라고 하면서 독자의 지적 수준이 낮은 현 단계에서 통속소설의 사회 교화적 역할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가 여기에서 주장하는 바는 김내성이 「대중문학

32) 정비석, 『소설작법』, 신대한도서(주), 1950. 4. 15.

33) 김내성, 전개 논문, <경향신문>, 1948. 11. 9.

34) (1) 通俗小說에서는 倫理觀이 常識的이어야 한다. (2) 通俗小說은 이야기의 줄거리에 波瀾曲折이 豊富해야 한다. (3) 通俗小說은 會話가 많아야 한다. (4) 通俗小說은 速度가 빨라야 한다. (5) 通俗小說은 文章이 平易하면서도 煽動煽情的이어야 한다.

과 순수문학」³⁵⁾에서 말한 바와 거의 일치하는 견해이다.

김내성은 스토리나 문장이나 묘사가 대중의 구미에 맞도록 평이하고 흥미 본위로 창작되어 왔기 때문에 그 중에는 독자의 문학적 교양보다도 뒤떨어지는 경우 대중문학이 가져야 할 태도를 '불행한 다수자' 속에 존재하되 대중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하며 대중을 계몽시키고 교양을 끌어 올려야만 한다고 했다. 김내성의 이런 대중문학관은 백철³⁶⁾의 논의에도 잘 나타나 있다. 김내성은 '통속성'과 '대중성'을 엄격히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소설에서 '통속성'은 배척되어야 할 것이지만 '대중성'은 소설적인 문학성으로서 중시하고 크게 살려가지 않으면 현대문학은 독자 대중과 고립되어 고갈해 버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백철은 김내성이야말로 우리 문학에 있어서 탁월한 생각을 갖고 새로운 대중소설의 경지를 이론과 작품 실천에서 개척하고 있던 작가였다는 회고와 함께 김내성의 문학관을 피력한다.

박영준³⁷⁾은 당시의 신문 연재소설 대부분이 연애 중심의 대중소설로 변해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작가뿐만 아니라 저널리스트들도 신문소설을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하였다. 신문소설은 곧 연애 중심의 대중소설이라야 한다는 작가와 저널리스트의 통념에다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유머소설, 탐정소설, 연애소설, 향토소설 등과 같이 다양한 소설 유형이 공존하기를 희망하였다.

방인근은 「대중소설론」³⁸⁾에서 대중성을 띠어야 하는 소설이 참다운 소설이며 소설을 읽을 줄 알고 소설을 사랑하는 대중은 상당한 지식계층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대중이 애독할 수 있는 소설이라야 소설의 소임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대중소설과 문예소설을 혼합일체로 하는 것이 소설의 본령

35) 김내성, 전계 논문, <경향신문>, 1948. 11. 9.

36) 백철, 「한국현대작가론·김내성편」, <새벽>, 1957. 4, 75-78면.

37) 박영준, 「문학과 작가의식」, <현대공론>, 1954. 8, 148-149면.

38) 방인근, 「대중소설론」, 『소설연구』 2, 서라벌예대, 1958.

이요 가장 가치 있는 소설이라 규정하였다. 소설을 통해 독자에게 어떤 인생관, 사회관을 알리게 된다면 그 형식은 대중적이든 문예적이든 상관할 바 아니나 소설로서의 모든 규격을 떠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 나라의 대중소설은 그 나라 문화수준의 척도가 되는데, 대중소설의 토막 토막에는 문예소설이 따르지 못할 것도 있지만 전체에 흐르는 통속성만 보고 경시해서는 잘못이다. 전체적으로는 어떤 사상과 주의가 흐르는데 그 일부분만 보고 저속이니 야비니 하는 것은 대중소설이 무엇인지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라 했다.

곽종원은 「통속성의 경계와 기술의 연마」³⁹⁾에서 순수문학이라는 말은 세계에서 통용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순수문학·통속문학은 일본에도 있었고 1930년대 한국에서도 있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는 순수문학은 상업주의에 대립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치주의에도 대립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거니와 이와 같은 인식은 그 이후 논의에서도 하나의 준거로서 작용하고 있다.

곽종원은 통속문학을 부정만 하지는 않았다. 통속문학은 독자대중의 기반을 닦아 주는 발판도 되며 점진적으로 독자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는 순수문학이라는 말을 주로 정치 초월의 의미로 쓴 것이기 때문에 순수문학의 상업주의적 측면에서 대립어인 통속소설을 필요악인 것처럼 생각하였다.

김동리는, 대중소설과 본격소설의 성격 차이를 10가지의 문답형식으로 이 둘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⁴⁰⁾

39) 곽종원, 「통속성의 경계와 기술의 연마」, <새벽>, 1954. 12, 46-48면.

40) 김동리, 「대중소설과 본격소설—그 성격적 차이에 의한 열 가지 문답」, <한국평론>, 1958.5, 167면 참조. 열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대중소설과 통속소설을 혼동하는 듯한데 어디까지 구별해야 하는가. (2) 신문소설과 통속소설과 대중소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3) 대중소설이니 통속소설을 비판하는 것은 순수소설가의 입장에서인가. (4) 예술성을 기준으로 본격소설과 통속소설을 구분하는데, 우리의 소설들은 서구에 비할 때 전부 통속소설이 아닌가. (5) 춘원의 소설은 순수소설인가 통속소설인가. (6) 순수소설은 독자를 무시해도 좋은가. (7)

안수길은 우리 나라에서 순문학자가 굶주리고 무시당하는 현실에 대해 독자와 저널리즘에 책임을 묻는다. 다음 글에서 이러한 면을 찾아 볼 수 있다.

스끄리브가 아무리 普及되고 프랑스 大衆에게 사랑 받고, 밀톤이 아무리 世上에서 無視를 當하고 있다손치드라도, 그리고 스킨리브가 아무리 돈을 벌고 밀톤이 가난하게 죽었다하더라도 밀톤을 스킨리브와 比較하려는 생각은 王丈을 蔑신에 비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勿論 저널리즘은 날마다 讀者에게 밀톤이나 王丈보다 스킨리브나 蔑신을 擇하기를 勸하고 있는 狀態이지마는……(41)

그의 이러한 견해는 대중소설에 대한 당대의 비판주의적 관점의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축을 같이하는 견해를 가진 이봉래는 체계를 갖춰 그의 대중문학관을 피력하였다. 대중소설의 독자는 소설을 하나의 오락으로 읽을 뿐 거기에서 인생을 발견한다든지 어떤 '모랄'을 찾는다든지 하는 것은 2차적인 것이며 또 찾았다고 해도 그것은 '우연의 부산물' 정도로 본다.

김기진은 「전쟁문학의 방향」(42)에서 육체적인 분위기 묘사에서 희열과 쾌락을 추구하는 일부의 경향은 비평정신을 결여한 비문학적인 경향이라고 했다. 그는 순수문학을 통속문학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보면서, '순수'라는 것을 '진실'이라는 용어와 동일하게 이해하였다. 전쟁문학이 순수문학에 대립되는 문학이 아니며 그것이 작가나 시인이 진실을 표현한 것이라면 명칭은 여하간

톨스토이의 「부활」도 주제가 기성도덕과 통하므로 통속소설이라 할 수 있는가. (8) 대중소설과 본격소설은 무엇으로 구분되는가. (9) 대중소설은 재미있고 본격소설은 재미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10) 통속소설은 구성적이고 순수소설은 구성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

41) 안수길, 「통속과 순수의 차이점」, <자유문학>, 1959. 2, 231면.

42) 김기진, 「전쟁문학의 방향」, <전선문학>, 1953. 2, 60-63면.

에 '순수'와 상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다. 그의 논리는 전쟁문학이라는 장르도 대중문학을 벗어나 순수문학으로 나아가기를 열망하는 것으로 보아 대중문학에 대해 외면하고자 하는 시각을 찾을 수 있다.

위에서 논의된 이들 외에 대중문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이들의 견해를 일부 발췌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작가가 讀者에게 끌려가려는 姿勢와 通俗性을 가지고 作品의 低調性을 露骨的으로 나타내고 있다. (중략) 그 低調한 通俗性이 度를 넘어 野卑에 가까우리만치, 作家가 意識的인 作品行動으로 나올 때에는……43)

우리는 現行되는 우리 文壇의 그 대부분의 純文學的인 創作들이 얼마만치 大衆小說的인 '스토리'의 公式性과 傾向文學的인 結論의 機械主義에 흐르고 있는가를 (중략) 根本的으로 우리 作家들의 創造力의 貧困에서 由來된 것이지…… 44)

가장 現實을 고대로 描寫한 것 같은 鄭飛石氏의 『自由婦人』이 時流的인 現象만을 그리고 만데 비해 가장 非現實的인 것 같이 보여지는 金東里氏의 小說에서 늘 우리는 참된 現實을 볼 수 있다.(중략) 文學者로서 참으로 現實逃避라는 評을 받을 사람은 항상 時流만을 살피고 時流의 '꼬리'에 매달려 가는 사람들일 것이다. 45)

우리의 主知的 小說의 範疇는 現狀況으로 봐서 널리 純粹小說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大衆小說과는 달리 讀者에 對하여 先入的으로 娛樂性이나 通俗性을 考慮하지 않고 自身(作家)의 思想이나 哲學 등을 포함한 생활, 體驗을 자신의 意圖대로 表現하는 作品表現의 純粹狀態를 말하기 때문이다. 46)

43) 임금재, 「懷疑와 摸索의 階梯—한국문학계의 현황과 장래」, <문화세계>, 1953. 7, 30면.

44) 조연현, 「주제의 의의—이에 대한 이해와 경고」, <문화세계>, 1953. 8, 62면.

45) 김양수, 「文學에 있어서의 現實—本質과 現象」, <현대문학>, 1955. 5, 50면.

46) 정봉래, 「韓國現代小說의 問題—그 一般의 分析」, <자유문학>, 1959. 4, 295면.

더구나 今日的 作品 더욱이나 長篇에 들어서는 어느 것이나 愛慾과 貪慾問題를 아니 取扱한 것이 없고 그 取扱의 方式이 病的인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47)

이들은 한결같이 당시의 대중소설이 애욕과 탐욕 문제를 병적일 만큼 통속적으로 다루고 있음에 대해 경계하며 작가의식에 대한 반성을 촉구한다.

2. 新聞小說論

1) 新聞小說의 成長 背景

신문소설은 근대문학의 중요한 존재 양상으로 대중매체의 발달 곧 자본주의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세계 최초의 신문소설로서는 프랑스의 <라 프레스>지에 1836년 10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연재된 발작의 「노처녀」(*La vieille Fille*)를 꼽는다.⁴⁸⁾ 동시대의 역사주의 비평가 쟁뜨-뵈브(*Saint-Beuve*)는 대중들의 저급한 문화적 욕망에 영합하는 그와 같은 문학적 상황을 가리켜 문학의 산업화라는 다소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면서까지 격렬하게 비난⁴⁹⁾했지만, 근대문학에 있어서 신문소설의 확대 현상은 이미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고 말았다.

우리 근대소설사에 있어서 최초의 신문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은 1903년 <한성신보>에 발표된 무서명의 「대동애전」(*大東崖傳*)으로 보인다. 신

47) 홍효민, 「문학의 건강성」, <서울신문>, 1950. 3. 17.

48) 김중현, 「프랑스 신문소설-7월 왕정기를 중심으로」, 『신문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6. 68면.

49) 김중현, 전계 논문, 62면.

문소설이 본격적으로 창작되기 시작한 것은 1906년 이후로 <만세보>에 연재된 이인직의 「혈의 누」가 이 시기의 신문소설을 대표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후 50여 년 동안 발달한 신문소설은 각계 각층의 독자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쉽게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문학, 즉 ‘대중의 문학’ 또는 ‘대중을 위한 문학’을 그 목표로 삼지 않을 수 없다.

신문소설은 문예잡지나 동인지 등에 실린 작품들이 처음부터 한정된 독자를 겨냥한 것과는 달리 한글을 해독한 사람이면 누구나 읽고 즐길 수 있는 광범위한 독자층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른바 ‘보통 사람의 문학’을 지향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신문소설이 신문사의 기업 이윤에 기여하면서 독자 대중의 저렴한 취미에 영합한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이 근대소설이 주요 발표 매체인 신문이 상업화와 결합되면서 통속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주장은 이미 상식화된 견해이다. 전 시대의 여러 문학 비평가들과 문학 연구가들이 인정하는 바, 사주와 신문 구독자들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소설의 개혁과 현실에 대한 작가들의 적극적인 대응 자세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들을 피력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신문소설이 소설의 중요한 존재조건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대의 소설이 지나치게 속화되어 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근대소설이 소수 문학가 집단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독자 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그들의 폭넓은 지지 위에서 성장 발전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도 신문소설의 공로라 하겠다.

다음은 1950년대의 신문소설에 관한 주요 논의와 기사들을 몇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1950년대 비평계의 시각과 작가들의 신문소설 창작론을 통해 당시의 신문소설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모색하는 데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논의의 편수는 모두 36편이며 참가자수는 18명이다

논의 유형	신문소설 창작론	신문소설 작품론	신문소설 논쟁	저널리즘론	좌담회
편 수	13편	11편	8편	3편	1편
비 율	36.1%	30.6%	22.2%	8.3%	2.8%

<표 2> 논의 유형별 분류

위의 <표 2>을 보면 논의의 절반 가량이 신문소설 창작론임을 알 수 있다. 나머지 논의 중 작품론은 신문소설의 연재를 마치거나 혹은 연재소설 예고, 연재 중인 소설에 대한 독자의 독후감이나 감상문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또 신문소설 논쟁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정비석과 황산덕의 『자유부인』을 둘러싼 공방전이다.

논 자	편 수	비율(%)	논 자	편 수	비율(%)	논 자	편 수	비율(%)
정비석	7	19.4	김영덕	1	2.8	김기진	1	2.8
곽종원	3	8.3	박화성	"	2.8	김문혜	"	2.8
김내성	"	8.3	서재관	"	2.8	박영준	2	5.6
안수길	4	11.1	정봉래	"	2.8	이무영	2	5.6
백 철	4	11.1	홍효민	"	2.8	조연현	"	2.8
황산덕	2	5.6	김우중	"	2.8	홍순엽	"	2.8

<표 3> 논자별 분류

논의에 가장 많이 참가한 정비석은 1954년 「자유부인」을 <서울신문>에 연재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이 작품은 발표 당시 사회 지도층 인사인 대학 교수와 그 부인의 외도를 정면으로 다루어서 대학가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또 지도층의 비리를 파헤치고 국가의 공익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작가가 치안국에 소환되는 수모를 겪기도 한 유명한 일화를 갖고 있다. “중공군 40만 명보다 더 무서운 해독을 끼치는 소설”이라든지, “북괴의 사주로 남한의 부패상을 살살이 파헤치는 이적(利敵)소설”이라는 비난에서 당대의 분위기를 짐작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또한, 그는 작품이 연재되는 동안 <서울신문>의 발행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가 연재가 종결된 뒤에는 5만 2천 부 이상이 일시에 격감하는 우리 신문 역사상 처음 있는 기록을 세웠다⁵⁰⁾고 언급한 바 있다.

2) 저널리즘과 讀者의 認識

신문사 측에서는 신문소설을 통해 ‘자사 발행 신문의 판매고 신장’을 도모하게 되는데, 이런 신문의 상업주의 현상이 1950년대에 와서 노골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지면이 급증한 상황에서 신문사 측에서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재소설을 이용한 것은 부정적인 면을 초래했던 요소이기도 하다. 신문마다 보도되는 뉴스의 내용이 대동소이함에 따라 각 신문사 측에서는 독자에게 그날그날 자사 신문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끌기 위해 주로 소설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정비석의 다음과 같은 글은 당시의 이런 상황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新聞企業主는 뚜렷한 目的을 가지고 新聞에 小說을 連載하는 만큼, 作者側에서도 新聞連載小說에 對할 때에는 暗黙裡에 그 要求 條件에 承認하는 結果가 된다. 즉 企業主로 볼 때에는 連載小說 自體가 純粹한 讀者 奉事이므로, 讀者가 읽어서 반드시 滋味있는 小說 -다시 말하면 讀者가 連載小說로 인해서 그 新聞에 愛着을 가질만한 小說을 쓰

50) 정비석, 「작가의 말」, 『자유부인』, 고려원, 1996, 8면.

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아서 성패는 여하간에 우선 그만한 부대 조건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藝術的이거나 非藝術的이거나 新聞社로서는 그런 점에는 關與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萬人이 읽어서 재미있는 小說, 그러므로 해서 讀者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끌 수 있는 小說이었으면 그만이다. 그것은 비록 成文化된 條件은 아니지만, 新聞小說에 떨어지기 쉬운 危險性이 여기에 潛在한다. 그러한 危險性을 어떻게 피해가면서 모든 讀者들에게 最大公約數의 文學作品을 꾸며나가는가 하는 것이 新聞小說 執筆家의 苦心인 것이다.⁵¹⁾

신문사의 입장에서는 독자수를 늘리려는 의도로 작가에게 연재소설 집필을 의뢰한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작가는 신문사의 요구 조건을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문사 측이 노골적으로 독자들의 흥미를 느낄 만한 재미있는 소설을 작가에게 요구하게 되면서, 이러한 상업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소설은 연재 도중에 중단 당하는 일까지도 있었다.

김기진이 <서울신문>에 역사소설 「군웅」(群雄)을 연재하다가 일방적으로 집필을 거부당해 작가와 신문사 간에 있었던 논쟁⁵²⁾은 상업성과 관련한 연재 중단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백철이 주장한 다음의 인용문도 1950년대 신문의 상업주의화에 따른 과정을 잘 지적하고 있다.

(……) 新聞連載小說을 쓰는데 있어서 取材가 農村, 農民이라면 벌써 新聞社側에서 머리를 흔든다는 것이다. (……) 우리 주위의 그 腐敗 頹廢한 現實과 風俗, 거기서 發達한 것은 一般大衆의 低俗한 趣味, 그 趣味에 迎合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쓰는 人氣小說 가운데에는, 실로 우리 文學史의 어느 新聞小說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破廉恥한 場面까지 나간 것이 많다. 여기서 農民小說을 쓴다면 설마 農村을 그리면서, 뎀스 파티가 나오고, 露骨的인 性慾 場面이 그려질 수 없을 것이니까, 썩느리즘에서 農民小說을 환영하지 않을 것은 事實이

51) 정비석, 「신문소설론」, 『소설작법』, 문성당, 1957, 220-221면.

52) 김기진, 「<서울신문>과 집필 거부와 나」, <신세계>, 1957. 1, 139-145면.

다.⁵³⁾

그가 말한 바와 같이 작품의 제재나 내용도 독자들의 취향에만 영합하는 신문사의 상업주의적 영향력에 작가가 자유로울 수 없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신문사는 연재소설을 철저히 독자의 확보 수단으로 인식함으로써 작가들은 창조적인 작품 활동이 위축되고 작품의 연속성 유지가 어렵게 되는 분위기에 처한 신문사와 작가간의 역학관계가 위의 글에 잘 드러나 있다.

이무영이 「계절의 풍속도」를 연재하기 직전에 언급한 다음의 내용도 그런 분위기를 잘 나타낸다.

“너무 작자 본의로만 고집하지 말고 신문사 생각도 좀 해 가며 쓰시오.” 이렇게 웃으며 하는 편집자 앞에 나는 또 “신문사 생각만 마시고 작자 생각도 해 주시오.” 하고 웃으며 협상이 되었다. 이쯤 되면 신문사도 작자도 별로 큰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을 지도 모른다.⁵⁴⁾

여기에서 이무영은 ‘협상’이란 단어를 써서 작가와 신문사가 별로 손해보지 않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결국 작가와 상업주의가 타협하는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는 글이다.

박영준과 안수길은 그들의 작품 「태풍지대」와 「제이의 청춘」의 연재를 앞두고 신문에 이렇게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낸다. 이는 신문소설을 집필하는 작자들이 독자를 어떻게 의식하는가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신문소설을 쓸 때마다 시험을 치는 것 같은 초조를 느끼게 된다. 소설을 읽을 때마다 표정이 달라지는 독자들의 얼굴이 무서운 그림자처럼 눈앞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최소한도 꾸지람을 하는 독자가 없도록

53) 백철, 「농민문학을 위한 제안—민족문학의 제재를 넓힌다?」, <자유문학>, 1956. 7, 227-228면

54) 이무영, 「다음 연재할 소설 ‘계절의 풍속도’」, <동아일보>, 1958. 10. 19.

써야 하겠다. 그리고 최소한도 나의 문학이라고 내세울 만한 작품을 써야 하겠다.⁵⁵⁾

많은 독자에게 읽어줌소사 하는 것이므로 글이 힘들고 지루해서는 안 되겠고 같은 남녀의 애정을 다루는 데에도 품위를 잃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나 서툰 글발이라 성과가 어떨지 오직 여러분의 편달을 바랄 뿐입니다.⁵⁶⁾

박영준은 독자의 반응에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것이 전적으로 신문사 측의 눈치를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최소한 나의 문학이라고 내세울 만한 작품을 써야겠다'면서 작품성을 추구하려는 의지도 표출하고 있다.

안수길도 역시 '힘들고 지루해서는 안되겠고' 하며 흥미를 추구해야 한다는 말을 한다. 즉 작가는 독자의 구미를 맞추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품위를 잃어서도 안 되겠다'고 함으로써 대중과 야합하여 독자의 취향에만 따라갈 수 없음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안수길은 이런 입장 때문에 신문소설이 '통속소설이면서도 예술소설'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속적인 이야기(소재)를 문학적으로 구상 표현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재미있는 줄거리로 끌고 나가되, 그것이 품위와 더불어 작가의 강력하고 투철한 주제의식에 집중됨으로써 독자가 매일매일 흥미를 가지고 읽는 동안에 작자가 제시하는 문제를 작가와 함께 생각하고 그러면서 표현(문장)과 구성이 세련되어 있어 문학적인 감흥에까지 끌리어 올라가게 하는 작품이 '통속소설이면서도 예술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⁵⁷⁾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상에서 1950년대 신문의 상업주의 경향과 작가들의 대응을 살펴본 결

55) 박영준, 「다음에 연재할 소설 '태풍지대」, <서울신문>, 1957. 7. 13.

56) 안수길, 「다음 연재소설 '제이의 청춘」, <조선일보>, 1957. 9. 15.

57) 안수길, 「창작 여담—'제이의 청춘'을 쓰고 나서」, <신문예>, 1958. 8, 15면.

과 신문사의 상업주의에 연재소설 역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소설이 게재되는 신문을 홍보하기까지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런 점은 작가들이 통속적 요소를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에 따라 신문소설은 곧 통속소설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은 1950년대 신문소설이 상당한 인기를 누렸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 시기 신문소설 연구는 소홀히 취급하거나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본다.

그렇다면 실제로 당시 독자들은 신문소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가. 또 신문소설이 대중들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했는가를 다음의 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특히 新聞小說은 매일 수많은 讀者에게 接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社會的인 影響은 時間的으로나 空間的으로 廣範圍하고 큰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社會的인 影響이 큰 藝術의 하나로 映畫가 登場되고 있는데 그것은 新聞小說에 비하면 그 社會的인 影響이 역시 新聞에 미치지 못하리라고 推測된다.

왜냐면 아직도 映畫는 都市中心으로만 興行되고 있고 비교적 高價한 觀覽料가 必要하기 때문에 新聞만큼 廣範圍한 地域으로 繼續的인 影響力을 社會에 미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한 新聞小說의 連載가 完了될 때까지는 적어도 六個月 정도씩 되니까 그 동안의 料금이 映畫의 것보다 더 클지도 모르겠으나 新聞은 連載가 完了되었을 때만 影響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繼續的으로 影響을 끼치는 것이니까 역시 新聞小說은 우리에게 가장 쉽게 接觸되고 影響을 주는 藝術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⁵⁸⁾

여기서 김우중은 1950년대에 접어들어서 예술상의 조류로 영화가 많은 인기를 끌었지만 그 영향력은 신문소설에 미치지 못했다는 주장을 한다. 영화

58) 김우중, 「신문소설의 사회적 영향—작가의 태도가 문제」, <동아일보>, 1959. 8. 1.

가 주로 도시 중심으로만 흥행되고 관람료도 비싼 한계가 있었지만 신문소설은 지역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당대에 가장 쉽게 대중들이 접촉할 수 있고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 예술양식이 신문소설이라는 것이다. 전파매체의 보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출판계의 활동이 부진하고 그에 대한 구매력이 빈곤한 실정에서 보면 당시에 생활 오락으로 신문소설이 많은 독자층을 확보했던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보인다.

3) 新聞小說 創作論

유한부인의 댄스바람을 그려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정비석의 「자유부인」의 인기를 부추긴 또 하나의 요인은 이 작품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이 논쟁의 발단은 서울대 황산덕 교수가 「자유부인 작가에게 드리는 말」이란 제목의 글⁵⁹⁾에서 『자유부인』이 대학교수를 모욕하는 소설이라고 비난한 데 있었다. 황산덕의 공개 비난문이 나오자 정비석은 황 교수의 글이 문학자들을 모욕한 것이라는 내용의 「탈선적 시비를 박(駁)함」⁶⁰⁾이라는 반박문을 발표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첫 번보다 더욱 격렬한 어조를 띤 반박문 「다시 『자유부인』 작가에게」⁶¹⁾를 발표했다. 그는 “『자유부인』이 문학작품일 수 없다”고 하며 “중공군 50만 명에 해당하는 적”이라고 몰아붙인다. 그러자 홍순엽은 정비석을 옹호하는 내용의 「‘자유부인’ 작가를 변호함」⁶²⁾을 발표한다. 한편 <대학신문>에서는 문학작품의 대중성과 예술성을 따지는 백철의 글이 실렸다. 「문학과 사회와의 관계—‘자유부인’ 논의와 관련해서」⁶³⁾라는 글에서 황산덕과 정

59) 황산덕, 「‘자유부인’ 작가에게 드리는 글」, <대학신문>, 1954. 3. 1.

60) 정비석, 「탈선적 시비를 박(駁)함」, <서울신문>, 1954. 3. 11.

61) 황산덕, 「다시 ‘자유부인’ 작가에게」, <서울신문>, 1954. 3. 14.

62) 홍순엽, 「‘자유부인’ 작가를 변호함」, <서울신문>, 1954. 3. 21.

63) 백철, 「문학과 사회와의 관계—‘자유부인’ 논의와 관련해서」, <대학신문>, 1954.

비석의 자세와 주장에 모두 문제가 있다는 내용으로 꼬집었다. 이처럼 격렬한 논쟁도 이 글로써 마감되었지만, 이로 인해 『자유부인』은 더욱 독자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러나 곽종원은 「신문소설과 모랄 문제」⁶⁴⁾에서 정비석의 『자유부인』을 분석하면서, 신문소설이 사회악을 폭로하는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온 가족이 다 읽어도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며, ‘인물의 성격 부조와 새로운 모랄의 제시’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곽종원의 글은 신문소설이 통속성을 많이 지니는 것이면서도 순문예소설을 지향해야 함을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이다.

정비석은 「신문소설론」을 통해 곽종원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한다.

(……) 作品이 內包하고 있는 社會的 倫理觀에 있어서도 新聞小說은 純文藝 長篇과 다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文學이란 항상 낡은 것을 止揚하고 새 것을 探究하는 精神的 所行인 만큼 純文學 作品에 있어서는 讀者大衆이야 歡迎하거나 말거나 作者 自身의 主觀에 의하여 새로운 倫理觀을 얼마든지 強力히 主要해도 相關없지만, 新聞小說은 直接 既成倫理를 尊重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⁶⁵⁾

그의 지론은 작가의 주관에 따라 새로운 윤리관을 강하게 주장해도 상관 없는 순문예 장편과는 달리 신문소설은 독자와 타협해야 하기 때문에 기성 윤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의 이런 창작 논리가 ‘자유부인’의 창작에도 적용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결국 지배 이데올로기에 순응하거나 타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비석의 이야기는 「장편소설과 성 문제」에서도 연결된다.

3. 29.

64) 곽종원, 「신문소설과 모랄 문제」, <현대공론>, 1954. 9.

65) 정비석, 전계 논문, 224면.

文學 本來의 使命은 人間의 眞實을 探究하는데 있겠지만, 人間의 根本的 生命이 性的 問題에 있는 만큼, 眞實이라는 것은 항상 異性間의 情緒를 통하여 表現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⁶⁶⁾

그가 파악한 장편소설 곧 신문소설이란 성적인 문제를 다루는 소설에 다름 아니라는 고백을 스스로 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에로스 문제도 다루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정비석의 경우는 이성간의 정서란 곧 에로티시즘이라는 생각을 견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정비석 외에도 신문 연재소설은 곧 통속소설이라는 관념을 심어주는 대표적인 작가들로 박계주·방인근·김내성·김광주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또 연애소설, 탐정소설, 무협소설 등을 다양하게 창작하여 젊은 독자층을 확보한 바 있다.

김내성도 신문소설 옹호론을 펼치는데 그는, 작가가 신문 구독자의 수준을 지나치게 낮추어 보는 데서 신문소설에 대한 부정적 관념이 싹트기 시작했다고⁶⁷⁾ 하며 신문소설의 지나친 통속성에 대한 인정과 함께 그 책임을 작가의 독자에 대한 시각에서 비롯되었다는 면으로 돌린다.

결과적으로 이런 점은 대중소설 작가들이 신문소설은 곧 통속소설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근거를 제공한 점이 없지 않았지만 이들은 신문소설의 통속적 요소를 적극 활용하였다. 이 점은 1950년대 신문소설이 독자에게 상당한 인기를 누린 요인이 되기도 했다. 물론 독자들의 무관심과 냉담으로 중도에 연재를 마치는 작품들도 있었지만, 정비석의 「자유부인」·「애정무한」·「슬픈 목가」, 김말봉의 「화관의 계절」, 안수길의 「제이의 청춘」, 이무영의 「계절의 풍속도」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대중소설들이 독자 대중과 함께 호흡하면서 인기리에 연재되었다. 이처럼 연재 당시 대중들의 폭발적인 인기와는 대조적으로 비평가들 중에는 그것을 경멸적인 의미로 '통속

66) 정비석, 「장편소설과 성 문제」, <문학> 22, 1950. 5, 217면.

67) 김내성, 「신문소설의 성격과 그 본질」, <현대문학>, 1957. 2, 62면.

소설'·'상업소설' 등으로 부르며 저급한 문학 또는 독자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소설로 평가하기도 했음은 여러 논의들 속에서 드러난다.

여기서 1950년대 신문소설에 관한 여러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신문소설은 대략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닌 것으로 파악된다.

첫째, 독자 대중의 저속한 취미에 영합한 작품이 많았고 이러한 경향은 1950년대에 와서 신문지면이 대폭 증가했다는 점과 신문의 상업성이 크게 드러나 작가들도 신문사측의 상업주의에 편승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신문사들은 경영을 구실로 이윤추구를 앞세우는데 신문 연재소설은 바로 판매 부수 증가와 독자확보에 좋은 수단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점이 신문소설의 통속화를 부추긴 결과가 되었다.

둘째, 통속적인 신문소설의 범람은 소설의 질적 저하를 가져왔고, 당시의 논자들은 '신문소설은 통속소설'이라는 관점에서 신문소설을 신랄하게 비판하였으며 이는 곧 순수문학의 위기로 보았다.

셋째, 신문소설은 독자들의 인기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독자가 참여함으로써 작품의 내용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신문소설이 독자 대중에게 현실에서 이를 수 없는 이상을 대리 만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공간이 되어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희망을 암시하는 '계몽의 문학'으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에는 신문소설의 통속성이 중요한 존재 조건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나치게 통속화되어 가는 것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설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대중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대중소설이 본격적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신문소설이 만들었다는 점은 어느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歷史小說論

1) 歷史小說의 成長 背景

일반적으로 역사소설이란 역사상의 사건·인물·풍속 등 사실(史實)을 소재로 하여 꾸민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역사 해석을 목표로 하거나 또는 지난날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재현시키려는 의도로 창작되기도 한다.

우리의 역사소설은 계몽기를 거쳐 1920년대에 와서 산발적으로 창작되다가 카프가 해산된 이후에 특히 성행하였다. 만주사변으로 일본의 군국주의가 고개를 들고, 민족통일단체인 신간회의 해산, 프로문학과의 검거 등으로 언론·문화에 대한 일제의 야만적 탄압이 가중되어 민족주의적 저항문학은 복고사상과 고전에 대한 관심으로 기울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추세하에 신문학의 대두와 더불어 일부 민족문학과 작가들은 역사소설을 쓰기 시작하였다. 대개 역사 소설은 현실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억압된 상황에서 발생한 저항문학과 도피주의라는 이중성을 가질 수 있다. 이 시대의 역사 소설은 민족의식의 간접적 고취와 우리 역사를 알린다는 목적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이 목적의식 때문에 사관이 고정되어 있고 인물 형상화에 있어서도 사건 중심이어서 큰 감동을 주지는 못한다. 목적의식이 작용하는 역사소설에는 역사에 대한 고증과 해석 뿐 아니라 사관의 표현이라는 의식 작용이 따르게 마련이어서 이것이 본격소설로 성공하는 데에는 필연적으로 몇 가지 한계에 부딪힌다. 첫째, 뚜렷한 목적의식 때문에 사관이 도식화되며 따라서 주체가 전달해 주는 감명이 약화된다는 점이다. 둘째, 인물의 성격 또는 사건의 의미가 지나치게 과장 또는 단순화되어, 내면적 갈등과 사회구조적 분석이 생략된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 논의의 기초 자료로 삼은 98편중에 1957년 이후에 논의된

평론들 중에 신문소설론과 역사소설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후, 신문의 상업주의적 성격이나 신문의 증면 현상 등이 신문소설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으리라 판단된다. 이런 증면 상황에서 신문사측이 독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신문 연재소설을 이용하게 되었다. 5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장편소설만 두 편이 동시에 연재되는 변화를 보여 주었다. 두 편의 장편을 동시에 연재하는 경우 한 편은 역사소설이 연재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역사소설은 신문연재에 적합한 형식일 뿐만 아니라 장기간 신문에 연재할 수 있어서 작가에게는 고정된 수입을 보장해 주었을 것이다. 또 작가로서 지나간 역사나 전통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50년대 후반에 역사소설에 대한 비평계의 논의가 활발한 것을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역사소설이 상업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역사를 한낱 야담과 같은 흥밋거리로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키는 경향이 심해지면서 비판을 받기도 했다.



2) 歷史小說에 對한 認識

1950년대에 역사소설론을 가장 많이 발표한 이는 박용구였다. 그의 「춘원의 역사소설—방법론적 분석 서설」⁶⁸⁾에서는 이광수의 역사소설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소재와 연대와 기간, 인명, 지명, 품계, 직명, 한문, 시각 등으로 나누어서 분석했다. 「역사소설 사건」⁶⁹⁾에서 그는 역사소설을 정의할 때 사적(史的)인 것이 배경이 되어 있는 것이라며 단순히 역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면 일단 문학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 이상, 문학으로서의 조건을 다 갖

68) 박용구, 「춘원의 역사소설—방법론적 분석 서설」, <현대문학>, 1958. 6-8.

69) 박용구, 「역사소설 사건」, <문예>, 1953. 5, 68면.

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과거의 우리의 역사소설은 대체로 야담이나 고담으로 떨어져 버린 채 본격적인 역사소설을 보여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역사소설에 대한 편견이 생기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는 역사소설가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역사소설가가 해야 하는 가능한 한도의 사적인 조사라는 것은 역사소설에 있어서는 불가결의 요건이다.

둘째, 역사소설이란 작가의 사관을 기초로 하고서 성립되는 것이다.

셋째, 역사소설이란 예술가의 손을 통해서 정리된 역사다.⁷⁰⁾

넷째, 역사소설은 과거를 소재로 한 것이지만 작가는 현대인이므로 어디까지나 현대문학이어야 한다.

다섯째, 역사소설은 과거 세대의 시대사조를 보여 주는 것을 움직일 수 없는 특질로 삼는다.⁷¹⁾ 등이다.

역사소설은 작가들에게 자료 조사, 사관, 예술가의 손, 과거 제시, 현대 문학적 성격 등을 요구한다. 그는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들을 종합한 끝에 역사소설의 「시대성」이란 개념을 제시하게 된다. 즉 그는, 역사소설이란 그것을 제작한 현대인의 눈을 통해서 관찰·정리된 그 배경이 되어 있는 시대 사조가 명확히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다. 과거의 사실과 현재의 입장을, 또 역사라는 대상과 현대인이라는 주체를 동시에 살려내어야 좋은 역사소설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홍효민은 중국의 역사소설과 영국, 독일, 프랑스, 스페인, 미국, 러시아 등지의 역사소설의 약사를 제시하고 난 후, 이광수, 김동인, 박종화 등의 역사소설을 개관하였다.⁷²⁾ 그에 따르면 현대는 일면으로 순수소설이 유행되면서 일면으로는 역사소설의 시대이며, 역사소설이 다른 순수소설보다 특이한 점은

70) 박용구, 전계 논문, 69-70면.

71) 박용구, 전계 논문, 159-160면.

72) 홍효민, 「역사소설의 사적 고찰」, <현대문학>, 1955. 2, 43면.

역사에 대한 계몽을 보편화하는 데 있다고 한다. 역사소설은 인류의 정신적 식량으로 가장 적합한 문화 유산으로 본다. 그는 또 서양 역사소설을 살펴보면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 이르러서 설화문학이나 사화 또는 사담의 수준을 벗어나 ‘확호(確乎)한 근대소설’이 되었다고 파악하였다. 역사가 있는 민족이나 국가는 반드시 역사소설을 요구하는 법⁷³⁾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앞에서 논한 박용구처럼 사관을 갖출 것을 요구하였다.

다음의 인용문에서 홍효민은 역사소설을 어느 차원까지 끌어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역사소설의 지향점을 시사해 준다.

純粹小說만이 優秀한 것이 아니라 歷史小說은 二重的으로 優秀해야 한다는 觀念을 우리는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探偵小說과 같이 아주 大衆化될 憂慮도 있고 墮落할 傾向도 있다. 歷史小說은 어디까지나 近代文學이다. 純粹小說과 다른없는 近代文學이다. 이것을 流行하는 探偵小說과 비유하는 傾向은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⁷⁴⁾

홍효민은 근대 역사소설은 어디까지나 근대문학이어야 하는 것으로 설화문학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순수소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창범은 「역사소설과 리아리티」에서 일제 강점기의 역사소설을 논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한계를 보이기는 하지만 창작 동기는 이해가 간다는 식으로 말하였다. 강점기의 역사소설들은 ‘작가의 풀 길 없는 심회의 가탁을 위한 방편으로, 역사적 소재를 선택함으로써 현실에 대하여 상응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라는 선의적인 해석이 허락될 수 있는 것⁷⁵⁾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역사소설은 우선 과거의 재현에 충실해야지 현대를 우의적

73) 홍효민, 「역사소설의 근대문학적 위치」, 1958. 8, 283-285면.

74) 홍효민, 전계 논문, 169면.

75) 정창범, 「현대소설과 리아리티」, <현대문학>, 1955. 10, 165면.

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방편, 또는 무대로 역사를 생각한다면 이미 역사소설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것⁷⁶⁾이라고 하였다. 역사소설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거나 역사소설의 기능을 좁힌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에 비해 윤고종은 『역사소설과 산문정신』에서 1950년대의 역사소설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原始的인 素材의 累積 또는 記錄과 같은 歷史小說은 많으면서도 作家의 強烈的 形象化적 노력이 全篇을 貫流하는 歷史小說이 드문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作家들이 스스로 노력과 고통의 도가니인 산문의 세계를 避하고 安易한 소재의 세계에 沒溺하고 있는 때문이다.⁷⁷⁾

위와 같이 윤고종은 1950년대 전반기에는 유례없이 많은 역사소설이 쏟아져 나왔으면서 소설이나 문학 이전의 소재 해설 수준에 머문 것들, 순간적이면서 일시적인 위안을 주는 데 멈춘 것들이 많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역사소설은 독자들이 호기심을 가장 잘 자극하는 소설 유형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당시의 역사소설을 보면 역사소설이라는 이름 대신에 야담, 고담, 신판야담, 신판 역사담, 고등야담 등으로 불려야 마땅한 것들이 많다는 것이 윤고종의 주장이다.

전광용의 「문화 계승과 창작의 방향」⁷⁸⁾에서 보이는 당대의 역사소설 비판의 대목은 앞에서 논한 정창범과 윤고종의 견해를 종합해 놓은 듯하다. 그는 우리 문학을 계승하는 방법과 태도를 논하고 난 후, 역사소설이 터무니없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아예 야담이나 사담이라고 명시하고 나오는 것은 제외하더라도 정말 문학다운 문학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내용이다. '일제

76) 정창범, 전계 논문, 166면.

77) 윤고종, 「역사소설과 산문정신」, <펜>, 1955. 12, 52면.

78) 전광용, 「유산 계승과 창작의 방향」, <자유문학>, 1956. 12, 209면.

시대만 하여도 단순한 민족의식의 계발 고취 등으로 역사소설이 지니는 계몽적인 존재 가치가 하나의 존재를 인정하는 아량이나 구실이 될 수 있었지만 당시의 역사소설은 문학적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학 이외의 가치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내용이다. 그는 김동인이 이광수의 소설 「마의 태자」, 「단종애사」, 「이순신」 등의 작품을 사담도 아닌 사회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오늘날에도 이러한 판단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한 것이다.

역사소설에 관한 논의의 쟁점은 이 시기의 역사소설이 복고적·통속적인 경향에 대한 것이다. 역사소설이라는 이름 대신에 야담, 고담 등으로 불러야 할 정도의 수준 하락과, 독자의 구미에 맞고 일시적인 위안을 주는 통속성 등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소설을 그 창작 의도와 근대소설에서의 발전 과정에 시선을 돌림으로써 대중소설이 갖는 통속성의 늪에서 역사소설을 건져내려 하였다는 점은 무척 고무적이라 하겠다.



4. 探偵小説論

1) 探偵小説의 性格

살인사건이 일어나 많은 용의자가 수사선상에 오르고 수사의 포위망이 좁혀지면서 진상이 하나하나 벗겨지다가 마침내 살인자는 용의자가 아닌 제3의 인물로 결국 체포되거나 죽는 결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설이 탐정소설이다.

탐정소설은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죄가 있고 전능한 이성의 힘으로 무장

한 탐정이 있고 그에 의해 사건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 주는 이 전형적인 패턴 속에서 문제의 제기→분석→추리→해결의 과정의 구조가 되풀이되는 등의 추리의 규칙⁷⁹⁾이 있다.

탐정소설은 정교하게 짜여진 구성에 의해 문제의 제기부터 문제의 분석, 추리의 해결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논리적 추론과 합리적 이성⁸⁰⁾에 근거하면서도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나는 놀라운 기지로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한다. 탐정소설의 가장 두드러진 기법적인 특징은 시간의 변조와 트릭의 사용이다. 다시 말해 탐정소설은 시간의 물리적 흐름에 따른 사건의 발생과 그 해명보다는 이미 발생한 사건의 인과 관계를 해명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두는 시간의 역전적 구성을 선호하게 된다.

우리 비평사에 있어서 최초의 탐정소설론이라 할 수 있는 글은 1928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중외일보>에 5회에 걸쳐 연재된 이종명의 「탐정문예소고」이다. 그는 여기서 '탐정문예'와 '탐정소설'을 구분하여, 전자는 포괄적임에 반하여 후자가 부분적인 것이라고 했다. 다음의 의견은 탐정문예와 탐정소설의 차이를 2회와 3회의 연재에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探偵文藝의 取材된 內容이 不可能한 空想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이른바 新派小說이라든가 空想小說의 種類를 벗어나지 못할 것임

79) S.S.반다인은 탐정소설의 규칙을 10가지로 규명하려 했는데, T.토도로프는 이것을 다시 8가지로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① 소설은 많아야 한 명의 탐정과 한 사람의 범죄자 그리고 최소한 하나의 희생물-즉 시체와 같은-을 가져야 한다. ② 범인은 전문적인 범죄자나 탐정이 아님에 틀림이 없고,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살인을 해야 한다. ③ 사랑은 탐정소설 안에서 놓일 곳이 없다. ④ 범인은 어떤 중요성을 가져야만 한다.—(a)생활에서:집사나 객실 담당 여종업원이어서는 안된다. (b)책에서:중요한 인물의 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⑤ 모든 것은 이성적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고, 환상적인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⑥ 묘사나 심리학적 분석이 놓이는 곳이 아니다. ⑦ 스토리에 관한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상동 관계가 관찰된다.(작가:독자=범죄자:탐정) ⑧ 진부한 상황과 해결책은 회피된다. (T.토도로프, 「탐정소설론」, 신동욱 역, 『산문의 시학』, 문예출판사, 1992, 55-56면.)

니다. 그것이 설사 現在에 있는 우리에게는 空想이라고 할지라도 可能한 空想, 科學的으로 보아 傳達될 수 있는 空想이라고 할 것 같으면 關係없기는커녕 도리어 大歡迎일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재미있게 하기 위하여 神話나 童話와 같은 虛無孟浪한 文字를 羅列하였다고 하면 혹시 讀者가 재미있게 볼지는 알 수 없어도 그것에서 그 어떤 感激이라든지 公명을 느낄 수는 없을 것입니다.⁸⁰⁾

探偵小説이란 그 內容이 事件적인 同時에 그것을 推理·判斷하는 것은 어디까지든 論理的·心理的이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內容이 徹頭徹尾 事件으로만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新聞의 3面 記事나 그렇지 않으면 스토리 中心이 低級小説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內容이 心理的으로만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在來小説의 典型에 지나지 못하겠지요. 허나 지금 내가 생각하는 새로운 探偵文藝의 內容은 事件적인 同時에 心理的-바꾸어 말하면 展開는 事件的으로 되어 가지고 그것을 解決·判斷하는 것은 心理的·科學的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아 내려오면 文藝小説과 探偵小説 사이에는 確然한 區別을 찾기 어렵게 됩니다.⁸¹⁾

이종명의 탐정소설에 대한 견해는 통속소설의 개념과 거의 비슷하다. 그는 탐정소설을 순문예소설과 구별지어 설명하는데, 탐정소설은 순문예소설에서 심리적 방면을 취하고, 통속소설에서 사건적 방면을 취하여 종합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대중소설에서 하위 영역인 탐정소설의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았다고 본다. 그의 글이 비록 이론적 수준이나 내용은 소박할지라도 우리 근대문학사에서 최초의 탐정소설론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80) 이종명, 「탐정문예 소고」, <중외일보>, 1928. 6. 6.

81) 이종명, 전계 논문, 1928. 6. 7.

2) 金來成의 探偵小說論

이종명의 탐정소설론이 나온 이후 우리 문단에서 탐정소설의 창작은 거의 공백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내성과 방인근의 몇 작품을 제외하고 이 시기 대중들 사이에서 널리 유통되었던 탐정소설은 대개 일본을 거쳐 수입된 서구의 탐정소설들이다. 1950년대에 발표된 탐정소설론은 김내성의 「아인슈타인 박사와 탐정소설」과 「탐정소설론」 그리고 방인근의 「탐정소설론」, 이봉래의 「한국현대소설의 문제」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이들의 탐정소설론과 특히 김내성을 중심으로 하여 1950년대 탐정소설에 대한 논의를 고찰하려 한다.

이봉래는 『한국현대소설문제』에서 추리소설에 대해 큰 비중을 두어 논하였다. 고전소설이나 현대소설을 막론하고 추리소설의 요소가 들어 있는 작품들이 많다고 하면서 이런 소설들이 현실의 합리성이나 구성의 합리성이 없음을 시인할 것이라고 하였다. 추리소설은 범죄소설, 애정소설, 비극소설로 구체화되기 쉽다고 하였다. 추리소설은 탐정소설이나 범죄소설에 가까운 특정소설 유형이기도 하지만 어떤 유형의 소설에서든 나타날 수 있는 소설의 본질적 속성의 하나이기도 하다. 실제로 추리소설의 기법은 개화기소설과 염상섭 소설에서 적극적으로 구사된 바 있다. 그리고 그는 추리소설의 장단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하지만 推理小說이 얼마큼 그 長短이 있는지 斷案하기에 힘들지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實感を 줄 수 없고 따라서 思想과 哲學的인 影響을 주지 못할 것이란 점이다. 이와 반대로 推理小說이 娛樂性을 풍겨 준다는 면에서는 異見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推理的인 것으로 構圖된 作品이 類似 現實的인 것으로 想像을 驅使한 내용은 확실히 독자를 幻想과 興味性 속에 몰아 넣는다. 따라서 독자는 이에 따라 幻想의 別個世界를 形成한다.⁸²⁾

이봉래는 추리소설의 단점으로 실감을 주지 못하고 사상과 철학적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을 말하며 반면에 오락성과 환상과 흥미를 독자가 얻게 된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고 있다. 탐정소설의 장점과 단점의 양면성을 주장한다.

방인근은 「탐정소설론」⁸³⁾에서 소설의 원조는 탐정소설인데 차차 진보되어 역사적인 것, 문예적인 것을 가미한 소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다시 분리되어 순역사소설이나 문예소설의 구분이 생기게 되었다고 말한다. 엄정한 의미에서 어느 소설이고 탐정미가 없는 소설이 없으므로 탐정소설도 발전시키고 개척할 여지가 있는 문학으로 본다. 그는 여기에서 탐정소설의 가치와 요소, 내용과 배경문제, 탐정작가가 되는 길, 스타일 등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그는 탐정소설에 대한 규칙을 내세우는 등 탐정소설의 범위와 가능성을 넓히는데 그의 힘이 컸다고 하겠다. 그의 대중소설 옹호론이 탐정소설론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

이들 중에 김내성은 탐정소설의 불모지에서 과감하게 전문 탐정소설 작가로 나서서 창작과 이론을 병행하여 이론적으로도 탐정소설의 본질과 장르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김내성은 「탐정소설론」⁸⁴⁾에서, 서양에서는 탐정소설이 계층과 직업, 노소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독서계를 파고 들어간 점을 프랑스의 탐정소설 이론가인 프랑수아 포스카의 말을 인용하여 소개하였다. 이 글은 탐정소설의 개념, 광의의 탐정소설(미스터리-추리소설), 협의의 탐정소설(정통파 탐정소설)과 탐정소설 이전(고전에 나타난 범죄와 탐정) 등 4장으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먼저 탐정소설의 개념을 제시하는 데에서 김내성은 애드가 알란 포, 반 다인, 가브리오, 코난 도일, 르블랑의 「알센 루팡물」, 아가사 크리스티, 일본의 江戸

82) 이봉래, 「한국현대소설의 문제」, <자유문학>, 1954. 4, 293면.

83) 방인근, 「탐정소설론」, 『소설연구』 2, 서라벌예대출판부, 1958.

84) 김내성, 「탐정소설론」, <새벽>, 1956. 3, 124-125면.

川亂步와 자신의 작품들 가운데 그 어느 것이라도 좋으니 읽은 것을 머리에 떠올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탐정소설에서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추리미(탐정미), 괴기미(신비미), 범죄미, 공포미(전율미), 모험미, 과학미, 불안미, 기지미, 잔인미, 공상미, 환상미 등을 일일이 열거하였다. 물론 모든 탐정소설에 이러한 요소가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라 작가의 매력 내지 기질에 따라서 특히 강조될 따름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작품마다 위의 요소가 다 들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 요소 가운데 몇 가지씩만 들어 있기도 한다. 애드거 알란 포, 코난 도일 등의 성공적인 탐정소설을 보면 본격소설, 예술소설, 문학사적인 소설에 들어가는 작품들에게서 구사된 뛰어난 기법들을 확인하게 된다. 예컨대, 과학미는 일반소설들보다 탐정소설에서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김내성이 제시한 탐정소설의 요소들에서 '미' 대신에 '소설'을 집어넣으면 추리소설, 괴기소설, 범죄소설, 모험소설, 과학소설, 환상소설 등과 같이 대개 소설 유형으로 성립될 수 있는 정도다.

탐정소설을 달리 부르는 별명의 하나로 범죄소설이 있다. 코난 도일의 탐정소설들을 집중 분석하면서 범죄소설로서의 탐정소설의 특질을 새로운 각도에서 찾아낸 모레티의 『실마리』는 성공적인 탐정소설의 의미를 성공적인 본격소설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모레티는 탐정소설은 '삶과 개성 사이의 대조'를 보여 준다는 명제에서 출발했다. 이 명제에는 탐정소설을 값싼 대중소설이나 통속소설, 흥미 위주의 스틸러로만 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탐정소설은 개인과 브르조아지를 갈라 놓는다. 브르조아지는 더 이상 모험, 신기성, 불균형의 챔피언이 아니며 오만과 보수적 태도와 보존의 챔피언(the champion of prudence, conservation and stasis)이다. 탐정소설의 경제적 이데올로기는 수요와 공급이 아주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관념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 (중략) 돈은 탐정소설에서 항상 범죄의 동기가 되지만 이 소설 유형은 생산

(production)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이다. 대중경제와 마찬가지로 탐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순환계에서의 이익의 비밀을 찾도록 부추긴다.⁸⁵⁾

모레티는 대중소설과 마찬가지로 탐정소설도 보수적이며 도피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탐정소설은 여러 가지 현실 문제에 대해 전혀 고민하지 않는 것으로 본 종래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김내성의 글이 지니는 가치는 탐정소설을 광의와 협의로 나누어 탐정소설의 범위와 가능성을 넓혀 본 데서 찾을 수 있다. 광의의 탐정소설은 영미에서는 미스터리라고 불렀고 일본에서는 '추리소설'로 부른다고 하였다. 광의의 탐정소설은 위의 탐정소설의 요소에 따라 여러 가지 하위 소설 유형을 지니게 된다.

- ① 퍼즐소설 …협의(狹義)에 있어서의 탐정소설로서 순전히 수수께끼 풀기를 주안으로 한 것
- ② 괴기소설 또는 신비소설
- ③ 범죄소설
- ④ 공포소설 또는 전율소설(소위 '스릴러')
- ⑤ 모험소설
- ⑥ 공상과학소설
- ⑦ 환상소설
- ⑧ 탐험소설
- ⑨ 기밀소설 또는 스파이소설
- ⑩ 경찰소설

이러한 소설유형 자체가 다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의 10가지 가운데서도 괴기소설, 범죄소설, 모험소설, 공상과학소설, 탐험소설 정도가 소설 유형으로 인정될 수 있다. 탐정소설을 이렇듯 넓혀 볼 수 있다는 것도 또 하나의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85) Tony Benet 편, 『Popular fiction』, Routledge, 조남현, 『한국현대소설유형론 연구』, 집문당, 1999, 216면, 재인용.

IV. 1950年代 大衆文學論의 文學史的 意義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중문학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대중의 개념을 정립해 보고자 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곧 대중의 개념을 여러 관점에서 정리한 후에 여기에 이런 대중들이 즐기는 문학이라는 의미가 대중문학의 정의의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렇게 대중을 지나치게 낮추어 보는 데에서 접근한 대중문학론은 부정적인 시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유해론의 시각에서 대중문학을 논의했던 다수의 경우가 그 동안 주로 유럽에서 논의되었던, 19세기 대중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틀에 맞춰 대중문학을 설명하는 경우였다. 귀족주의적·엘리트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하여 이를 설명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대중문학에 관한 논의는 당연히 대중문학의 접근 태도부터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 나라에서의 대중문학에 관한 논의는 소수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것도 부정적 속성으로 비판한 것이 대중을 이룬다. 하지만 한 권의 시집이나 소설이 몇 십만 권에서 몇 백만 권까지 팔리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베스트셀러는 대중문학이라는 도식적인 단순 논리가 더 이상 옹호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엄청난 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대중문학을 텍스트로 삼아 본격적인 의미분석을 통해 문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한다.

문학의 비속화, 지나친 상업성의 추구, 기존 체제에의 순응이라는 대중문학의 부정적인 요소를 경계하면서, 한편 대중문학이 우리의 문학풍토에서 어떻게 정립되어 왔으며 대중문학이 성공하게 된 요인과 자질을 확인하는 작업

은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업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1950년대 대중소설론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는 매우 빈약하다. 몇몇은 작품론이나 작가 연구의 한 부분으로 다뤄지거나 또는 한국 대중문학론의 전개 속에 부분적으로 논의되는 정도이다.

이 연구는 1950년대 대중소설론의 전개양상을 살피기 위해 당시에 신문이나 문예지에 실렸던 90여 편의 논의를 기초 자료로 썼다. 이를 통해 1950년대의 일반적인 대중문학론을 비롯해 대중문학의 중요한 축이 되는 소설을 논의하는 자료를 기준에 따라 몇 가지 하위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드러나는 1950년대 대중소설론의 문학사적 의의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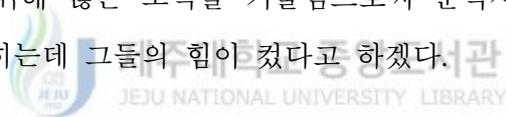
한국의 대중문학론의 전개 과정에서 '대중문학'이라는 용어가 어느 정도 자리잡게 된 것은 5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특히 이 시기의 대중문학에 관한 논의는 그 이전까지의 논의들을 종합하면서, 독자의 대중성과 내용의 통속성 때문에 혼용되었던 대중소설이라는 용어를 바람직한 방향에서 정착시킨다.

대중소설에 관한 논의 중 특히 신문소설론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교육의 양적 팽창에 따른 식자층의 증가와 신문의 상업주의적 성격이나 신문의 증면 현상 등이 신문소설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판단된다. 아울러 정비석과 김내성, 방인근, 안수길, 이무영, 김광주 등은 신문소설 옹호론을 펼치면서 작가의 주관에 따라 새로운 윤리관을 강하게 주장해도 상관없는 순문에 장편과는 달리 신문소설은 독자와 타협해야 하기 때문에 기성 윤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지론을 주장한다. 이렇듯 이들은 이 시기에 신문소설이 곧 통속소설이라는 부정적 관념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도 주목할 사항이다. 그러나 문학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대중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대중소설이 본격적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신문소설이 만들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비판의식을 표출하는 기능을

신문소설이 수행하였다는 점은 1950년대 신문소설의 두드러진 위상이다.

이 시기의 역사소설에 관한 논의는 비판론과 옹호론 그리고 절충론으로 나뉘는데 이 시기의 역사소설이 상업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통속성과 오락성의 과다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지만 대중문학에 대한 하위 영역으로 역사소설을 독립시켜 통속소설의 늪에서 건져내려 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 시기에 우리 문학사에 있어서 탐정소설의 창작은 거의 공백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그에 관한 넓은 논의의 지평을 열지 못한 것이 이 시기의 한계라 판단된다. 김내성과 방인근의 몇 작품을 제외하고 이 시기 대중들 사이에서 널리 유통되었던 탐정소설은 대개 일본을 거쳐 수입된 서구의 탐정소설들이다. 그러나 탐정문학의 불모지에서 과감하게 전문 탐정소설가로 나서서 창작과 이론을 병행하여 이론적으로도 탐정소설의 본질과 장르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문학사에서 탐정소설의 범위와 가능성을 넓히는데 그들의 힘이 컸다고 하겠다.



V. 結 論

이 연구는 아직까지도 단편적이고 부분적으로 논의되는 1950년대의 대중소설의 논의들을 종합적인 차원에서 검토함으로써 우리 근대문학사의 영역과 범위를 확장해 보는 데에 의의를 두었다.

대중문학에 대한 오늘날의 연구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다.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던 이유는 대중소설은 통속소설이라는 사회적 통념과 본격문학의 외곽에 존재하는 주변문학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작용한 결과이다. 시기별로 볼 때 1930년대와 1970년대의 논의는 비교적 활발한 편이나 해방이후부터 1950년대의 대중소설론에 관한 연구는 빈약하다. 그 중의 몇몇은 작품론이나 작가 연구의 한 부분으로 다루어지거나 또는 한국 대중문학론의 전개과정 속에 부분적으로 논의되는 정도이다.

대중문학에 대한 분산된 논의들을 통합하고 재구성하여 우리 근대 문학사의 전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인식의 틀을 만드는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이 연구는 그 기초 작업으로서 1950년대 대중소설론의 전개 양상과 동시대의 작가 및 평론가들의 대중문학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1950년대 대중소설론의 전개양상을 살피기 위해 당시 신문이나 문예지에 실렸던 90여 편의 논의를 통해 1950년대 대중문학론 자료를 기준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고찰함으로써 전체적인 대중문학론의 흐름을 조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과 고찰을 토대로 본론에서 논의된 결과를 요약 제시하여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첫째, 한국 대중문학론의 전개 과정에서 ‘대중문학’이라는 용어가 어느 정도 정착하게 된 것은 5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중소설론의 전개양상을 고찰하기 위해 대중소설의 유형을 ‘신문소설·탐정소설·역사소설·연애소설’ 등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에 따른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둘째, 1957년 이후의 논의 중 신문소설론과 역사소설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으로 미루어 볼 때, 전쟁 후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교육의 양적 팽창에 따른 식자층의 증가와 신문의 상업주의적 성격이나 신문의 증면 현상 등이 신문소설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판단된다. 문학사의 관점에서 대중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대중소설이 본격적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신문소설이 주도했다는 점은 쉽게 수궁이 갈 것이다. 또 비판의식을 표출하는 기능을 신문소설이 수행하였다는 점은 1950년대 대중소설의 두드러진 위상이다. 아울러 정비석과 김내성, 방인근, 안수길, 이무영, 김광주 등은 신문소설 옹호론을 펼치면서 활발하게 논의를 전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정부의 자문기관이며 예술의 창달기관인 학·예술원의 설립과 함께 1955년 순문예지 「현대문학」이 창간되고, 휴간 중이던 「문예예술」이 속간되었으며 뒤이어 「자유문학」 등 발표지면이 확보되면서 작가와 평론가들이 신문소설과 저널리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창작과 비평활동이 활발해졌다. 동시에 신문과 잡지가 현실 비판과 독자 계몽의 역할을 포기하고 영리추구라는 상업성을 행사하게 되면서 대중매체의 변질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 점은 1950년대 신문소설이 상당한 인기를 누렸던 것과 대조적으로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넷째, 1950년대 대중문학에 대한 논의는 순수와 대중이라는 구도 속에서 옹호론과 비판론으로 나뉘어 논의되었다. 정비석은 본격소설과 통속소설로 나눈다. 그는 통속소설을 무조건 경멸하는 자세를 버리라고 하면서 독자의 지적 수준이 낮은 현 단계에서 통속소설의 사회 교화적 역할을 결코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방인근은 대중성을 띠어야 하는 소설이 참다운 소설이라고 했고, 곽중원은 통속문학을 부정만 하지는 않으면서 독자 대중의 기반을 닦아 주는 발판도 되며 점진적으로 독자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 주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봉래는 대중소설에 대한 긍정적 발언을 하면서 본격소설과 대중소설의 분기점은 한마디로 “문학 창조에 있어서의 작가의 태도 또는 자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다각적인 논의와 검토로 심도 있게 대중문학론을 전개할 수 있는 점이 고무적이라 하겠다.

다섯째, 우리 비평사에 있어서 최초의 탐정소설론이라 할 수 있는 글은 이종명의 「탐정문예소고」이다. 그 이후, 탐정소설의 창작은 거의 공백 상태를 보이다가 김내성과 방인근의 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널리 유통되었던 탐정소설은 대개 일본을 거쳐 수입된 서구의 탐정소설들이다. 김내성은 전문 추리작가로 나서서 창작과 이론을 병행하면서 추리소설의 본질과 장르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방인근은 탐정소설의 범위와 가능성을 넓히려는 이론을 전개하기도 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여섯째, 이 시기의 대중소설론이 옹호론과 부정론으로 나누어져 있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동시대의 작가들이 근대를 비판하건 추종하건 간에 근대적 사유의 한 방식인 이항 대립적인 문학관을 극복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1950년대 대중문학론의 전개 양상과 문학사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자료의 미비와 체계적인 논의의 부족으로 심층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많다. 이 점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중문학 연구의 의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도 뜻깊은 일이라 하겠다. 지금 우리는 문학뿐만이 아니라 각 분야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문화적 변혁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변화의 물결을 완고히 거부해서 과거의 문학관만을 고집해서도 안되고 그렇다고 무조건 새로운 것만을 추구해서도 안된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문학의 전통을 폭넓게 수용하여 미래를 유연한 시각으로 통찰하는 자세가 필요하리라 본다. 그런 점에서 대중문학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존속되어 왔고, 앞으로 더욱 확장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통과 변혁이라는 과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마련해주리라 기대된다.

<參 考 文 獻>

1. 기본 자료

<부록> 참조.

2. 논문

강옥희(1999), 「1930년대 후반 대중소설 연구」, 상명대학교 박사논문.

강진호(2001), 「1950년대 현실과 도덕적 계몽의 서사—「자유부인」을 중심으로」, 정덕준 외, 『한국의 대중문학』, 소화.

권선아(1994), 「1930년대 대중소설의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김강호(1994), 「1930년대 한국 통속소설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논문.

——(1997. 3), 「한국근대 대중소설론의 발생과 전개」, 오늘의 문예비평 24.

김기진(1929. 4. 14), 「대중소설론」, <동아일보>.

——(1928. 11. 9-20), 「문예시대관—통속소설 소고」, <조선일보>.

김내성(1948. 11. 9), 「대중문학과 순수문학—행복한 소수자와 불행한 다수자」, <경향신문>.

김동인(1919. 8), 「소설에 대한 조선 사람의 사상을」, <학지광> 18호.

김영찬(1995), 「1930년대 후반 통속소설연구-‘짚레꽃’과 ‘순애보’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김중현(1996), 「프랑스 신문소설—7월 왕정기를 중심으로」, 『신문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 김춘식(2000), 「대중소설과 통속소설의 사이—60년대 후반~70년대 대중소설에 대해서—」, 『대중문학과 대중문화』,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엮음, 아세아출판사.
- 김한식(1998), 「1930년대 후반기 장편소설론 연구-통속소설론을 중심으로」, 『현대소설 연구』 제9호, 한국현대소설학회.
- 문성숙(1998), 「한국 대중문학론의 전개과정 연구」, 한국문학연구 20집, 동국대학교 문학연구소.
- (2001), 「한국 대중문학론의 전개 양상」, 『한국의 대중문학』, 소화.
- 문학과문학교육연구소(1999), 「풍속·역사·통속소설의 전개」, 『한국현대 소설사』, 삼지원.
- 박철우(1996), 「1970년대 신문연재소설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논문.
- 박휘종(1996), 「1970년대 대중소설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논문.
- 백운주(1996), 「1930년대 대중소설의 독자공감요소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논문.
- 서영채(1993), 「30년대 통속소설의 존재방식과 그 의미」, 『민족문학사 연구』 4.
- 안낙일(2001), 「1970년대 대중소설의 두 가지 서사 전략—'별들의 고향'과 '영자의 전성시대'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문학』, 정덕준 외, 소화.
- 오생근(1976), 「대중문학이란 무엇인가」, 김현,김주연 편,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과지성사.
- 유임하(2000), 「전후소설과 대중문화의 상호연관」,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대중문학과 대중문화』, 아세아문화사.

- 윤백남(1933. 5. 14), 「신문소설, 그 의의와 기교」, <조선일보>.
- 이원조(1933. 3. 13-20), 「순수문학과 대중문학의 문제」, <조선일보>.
- 이정옥(1999), 「대중소설의 시학적 연구-1930년대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박사논문.
- 이종명(1928.6.6), 「탐정문예 소고」, <중외일보>.
- 이종호(1996), 「1930년대 통속소설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 정비석(1996), 「작가의 말」, 『자유부인』, 고려원.
- 조남현(1984), 「통속소설의 실상」, 『문학과 정신사적 자취』, 이우출판사.
- 조성면(1996), 「1930년대 대중소설론의 전개 양상」, 『한국학 연구』 6,7집.
- 최소영(1995), 「이태준 신문연재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 추은주(1997), 「1970년대 대중소설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 한명환(1996), 「1930년대 신문소설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논문.
- 홍정선(1997), 「한국대중소설의 흐름—통속소설 문제를 중심으로」, 조성면 편저, 『한국 근대 대중소설 비평론』, 태학사.
- Arnheim, Rudolf(1983), 「Film as Art」(London: Faber & Faber), 박성봉, 『대중예술의 미학』, 동연.
- J.G.카웰티(1995), 「도식성과 현실도피와 문화」, 박성봉 역, 『대중예술의 이론들』, 동연.
- Laner, Max(1957), 「America as a civilization : life and thought in the United States today」(New York : simon & schuster), 박성봉, 『대중예술의 미학』, 동연.
- 움베르토 에코(1994), 『대중의 슈퍼맨』, 열린책들.
- Thomas Munro(1989), 「Art, Classification of the」, Encyclopedia

Britannica, vol. 14,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엮음, 『대중문학과 대중문화』, 아세아문화사.

Tony Benet 편(1999), 『Popular fiction』,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조남현, 『한국 현대소설 유형론 연구』, 집문당.

T. 토도로프(1992), 『탐정소설론』, 신동욱 역, 『산문의 시학』, 문예출판사.

Williams, Raymond(1982), 『Communications』, 3rd ed. (Penguin Books), 박성봉, 『대중예술의 미학』, 동연.

3. 단행본

구인환 외(1996), 『한국 전후문학 연구』, 삼지원.

권영민(1988), 『대중문화의 확대와 소설의 통속화 문제』, 민음사.

김동윤(2001), 『신문소설의 재조명』, 예림기획

김주연(1985), 『대중문학과 민중문학』, 민음사.

김창식(2000), 『대중문학을 넘어서』, 청동거울.

김학성 외(1990), 『한국 근대문학사의 쟁점』, 창작과 비평사.

대중문학연구회(편)(1995), 『대중문학이란 무엇인가?』, 평민사.

대중문학연구회(편)(1996), 『신문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대중문학연구회(편)(1998), 『연애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대중문학연구회(편)(2000), 『과학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엮음(2000), 『대중문학과 대중문화』, 아세아문화사.

박성봉 편역(2000), 『대중예술의 이론들』, 도서출판 동연.

박성봉(2001), 『대중예술의 미학』, 도서출판 동연.

- 백 철(1963), 『신문학사조사』, 민중서관.
- 서광운(1993), 『한국 신문소설사』, 해돋이.
- 임성래 외(1999), 『대중문화의 이해』, 청예원.
- 정덕준 외(2001), 『한국의 대중문학』, 도서출판 소화.
- 정한숙(1982), 『현대한국문학사』, 고려대학교출판부.
- 조남현(1999), 『한국 현대소설 유형론 연구』, 집문당.
- 조동일(1988), 『한국문학통사』, 지식산업사.
- 조성면(1997), 『한국 근대대중소설 비평론』, 태학사.
- 한강희(2001), 『우리 근·현대문학의 맥락과 쟁점』, 태학사.
-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1994), 『한국비평문학대계1』, 동양서적.
- 한국현대문학연구회(1991), 『한국의 전후문학』, 태학사.
- 허버트 J. 갠스(1998), 『대중문화와 고급문화』, 나남출판사.



<Abstract>

A Study on the developing phrase of the Popular Novel Theory in 1950s

Lee Hyo-Soon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Moon Seong-S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veloping phrase of the popular novel theory in 1950s and to get some general ideas of the popular literature. As the discussion on the popular novel in 1950s has been only in parts, this study places emphasis on the expansion of the literary realm by examining it comprehensively. For this purpose, over 90 articles and comments appeared in the newspapers and literary magazines in those days are also examined thoroughly.

In the developing process of Korean popular literature theory, the term of "The Popular Literature" was not settled until 1950s. The novels published in the newspapers in those days had quickened the development of the mass society and the popular literature. They also

had an important role in terms of the critical consciousness. Nevertheless, with its several weak points there haven't been such satisfactory studies.

Only a small number of critics went into the discussion on the popular literature in 1950s. In addition, it was not an intensive discussion but a sporadic one. some critics also adhered to their negative viewpoints ; its vulgarity, the pursuit of excessive commercialization, and the sympathy with the existing system. However, it is indispensable to check the successful elements and qualities of the popular literature. we should not underestimate its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and should try to set the literary place correctly through it.

As a lot of things have been changing in all respects of the literary theory, we should be quick to adapt to the trend of the times. That is, the study on the popular literature should be continued with an affirmative concept and an overall outlook. In this point, this study is thought to be supply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later study on the popular literature.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2.

<附錄>

年度別 資料 目錄

발표일	논 자	제 목	출 처
1950. 1.	정비석	통속소설소고	신대한도서(주)
1950. 1. 7.	김내성	평민성과 고답성	서울신문
1950. 3.	김내성	아인슈타인 박사와 탐정소설	백민 3
1950. 3. 17.	홍효민	문학의 건강성	서울신문
1950. 5.	정비석	장편소설과 성 문제	문학 22
1950. 5.	홍효민	애욕소설의 윤리	문학 22
1950. 5.	정비석	신문소설 고심담	혜성 4
1950.5. 4-7.	백 철	순소설과 정통소설 — 대중소설과 는 삼각관계인가?	서울신문
1952. 1.	곽종원	문학 정신의 확립	자유세계
1952. 4.	임궁재	전시하의 한국문학자의 책무	전선문학
1952. 5.	좌담회	평론가 한담회	문예
1953.	정비석	소설작법	선문사
1953. 2.	김기진	전쟁문학의 방향	전선문학
1953. 2-5.	김내성	소설 제목 도난기	문예
1953. 5.	박용구	역사소설 사건	문예
1953. 5.	조연현	한국전쟁과 한국문학	전선문학
1953. 7.	임궁재	회의와 모색의 계제	문화세계
1953. 8.	조연현	주제의 의의	문화세계
1953. 8.	곽종원	문단의 정화와 그 권위의 확립	신천지
1953. 9.	곽종원	상반기 작단 총평	문예
1953. 9.	박용구	역사소설사건. 속	문예
1953. 11.	박종화	작가의 자숙과 반성	문화세계
1954. 3. 1.	황산덕	'자유부인' 작가에게 드리는 말	대학신문
1954. 3. 11.	정비석	탈선적 시비를 박함	서울신문
1954. 3. 14.	황산덕	다시 '자유부인' 작가에게	서울신문
1954. 3. 21.	홍순엽	'자유부인'의 작가를 변호함	서울신문
1954. 3. 29.	백 철	문학과 사회와의 관계—'자유부인' 논의와 관련해서	대학신문
1954. 4.	이봉래	한국현대소설의 문제	자유문학
1954. 8.	박영준	문학과 작가의식	현대공론
1954. 9.	곽종원	신문소설과 모랄 문제	현대공론
1954. 10.	강규언	순수문학의 변명	원광문화
1954. 12.	곽종원	통속성의 경계와 기술의 연마	새벽

발표일	논 자	제 목	출 처
1955. 1. 10.	정비석	'황' 마담을 기소	한국일보
1955. 2.	홍효민	역사소설의 사적 고찰	현대문학
1955. 5.	김양수	문학에 있어서의 현실	현대문학
1955. 7.	최재서	문학의 속성	새벽
1955. 10.	정창범	역사소설과 리아리티	현대문학
1955. 12.	윤고종	역사소설과 산문정신	펜
1956. 3.	김내성	탐정소설론 1	새벽
1956. 5.	김내성	탐정소설론 2	새벽
1956. 6-11.	박용구	춘원의 역사소설 연구	현대문학
1956.7.	백 철	농민문학을 위한 제언—민족문학의 제재를 넓힌다?	자유문학
1956. 8.	좌담회	문인·학생 문학 좌담회	자유문학
1956. 9.	장용학	감상적 발언	문학예술
1956. 9.	곽종원	답보와 모색의 교차	신태양
1956. 12.	전광용	유산계승과 창작의 방향	자유문학
1957.	백 철	한국현대작가론 2 - 김내성편	새벽
1957. 1.	정비석	'자유부인'의 생활과 그 의견	신태양
1957. 1.	김기진	'서울신문'과 집필거부와 나	신세계
1957. 2.	김내성	신문소설의 형식과 그 본질	현대문학
1957. 2.	김내성	연애와 사회	신태양
1957. 3-4.	이봉래	대중문학론	문학예술
1957. 4.	유종호	역사문학과 문학정신 : 박종화	여원
1957. 4.	백 철	한국현대작가론·김내성편-그의 후기 작품을 중심으로	새벽
1957. 4.	정비석	김내성 이야기	신태양
1957.4. 23.	김문혜	'실낙원의 별'을 끝맺으며	경향신문
1957. 5.	정창범	현대소설과 그 작용력에 대한 반성—독자와 현실	현대문학
1957. 7.	김영덕	신문소설과 윤리	자유문학
1957. 7.	이봉래	성문학 시비	사상계
1957.7. 13.	박영준	다음에 연재할 소설 '태풍지대'	서울신문
1957. 8.	이무영	소설과 모랄 -꿈의 문학 제4화-	자유문학
1957. 9.	좌담회	문학과 신문 문화면	자유문학
1957. 9.	권두언	순수와 비순수	자유문학
1957.9. 15.	안수길	다음 연재소설 '제이의 청춘'	조선일보
1957. 12.	윤병로	문학에 있어서의 연애 문제	현대문학
1957. 12.	이영일	윤리적 현실의 의미	현대문학
1958.	박종화	역사소설론	소설연구2 (서라벌예대)

발표일	논 자	제 목	출 처
1958.	방인근	탐정소설론	소설연구 2 (서라벌예대)
1958.	박종화	역사소설은 어떻게 써야 하나	소설연구 2 (서라벌예대)
1958.	정비석	신문소설론	소설연구 2 (서라벌예대)
1958.	방인근	대중소설론	소설연구 2 (서라벌예대)
1958. 1.	조연현	간통문학론	현대문학
1958. 1.	최재서	문학의 내용과 형식	사상계
1958. 2.	최일수	문학과 대중	사상계
1958. 3.	김우중	아쁘레문학과 성도덕	현대
1958. 4.	이어령	현대작가의 책임	자유문학
1958. 4.	서재관	신문소설에 불평있다 — 애정·애욕도 깊이 탐색하라	현대
1958. 5.	김동리	대중소설과 본격소설—그 성격적 차이에 관한 열 가지 문답	한국평론
1958. 5.	김상일	순수문학론	현대문학
1958. 5. 9.	조연현	김말봉작 '화관의 계절' 평	한국일보
1958. 5.28.	곽중원	신문소설 공과	동아일보
1958. 6.	이철범	역사적 체험과 비평정신	자유문학
1958. 7. 9.	안수길	통속소설 이면과 순수문학 — 신문 소설이 나아갈 길	서울신문
1958. 8.	홍효민	역사소설의 근대문학적 위치	현대문학
1958. 8.	안수길	창작여담—제2의 청춘을 쓰고 나서	신문예
1958. 8.	홍효민	역사문학의 근대문학사적 역사	현대문학
1958. 9.	백 철	오인된 미국문화-부박과 퇴폐가 과장되다	신태양
1958. 10.	정비석	박인수의 경우	전망
1958.10. 19	이무영	다음 연재할 소설 '계절의 풍속 도'	동아일보
1958. 12.	최일수	문학의 현실·우리의 비원	지성
1959. 1.	김두헌	문학과 윤리학과 상이성	자유문학
1959. 2.	안수길	통속과 순수의 차이점	자유문학
1959. 4.	정봉래	한국현대소설의 문제	자유문학
1959. 4.15.	박화성	신문소설과 그 위치	서울신문
1959. 7.17.	정봉래	신문소설의 위치	세계일보

발표일	논 자	제 목	출 처
1959. 7.	정태용	문학에 관한 단상	신문예
1959. 7.	다그라스 부쉬	현대소설과 성 문제	현대문학
1959. 8. 1.	김우중	신문소설의 사회적 영향-작가의 태도가 문제	동아일보
1959. 12.	좌담회	1950년대의 문학을 말한다.	자유문학

